

태권도 소식

대한태권도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최세창 회장을 비롯한 시도지부 및 중앙대의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제적 대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9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11억 1천 4백만원)와 9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11억 9천 6백만원) 등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송봉섭(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겸 전무이사), 조영기(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 감사를 유임시켰다.

그밖에 기타 사항 토의에서의 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국체육대회의 서울 거주 심판진 구성을 시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 상임심판원으로 심판원 배정

— 94년도 총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인 범인화 추진은 : 95년도 중 5억원의 기금이 모아지면 범인 설립으로 문화체육부로부터 5억의 지원을 받을 것임.

— 대한태권도협회의 시범단 구성의 제안에 대해 : 시범단 파견은 국고로 시행되어 국기원 시범단을 해외에 파견, 별도의 시범단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없

음.

—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과 관련, 경기 규칙을 차등점수제로 도입하자는 건의에 대해 이는 앞으로 연구 검토사항이나를 개정은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되어야 할 것임.

결산 이사회 개최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17일 올림픽 파크텔 2층 호돌이룸에서 1994년도 결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199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1995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중앙대의원 추천, 기술심의회 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수여 3개 부문 유공자 시상

대한태권도협회는 3월 4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대한태권도협회 표창수여식을 갖고 우수도장상, 지도상, 경기상 등 3개 부문의 유공자 52명에게 표창장과 홍장을 수여했다.

최세창 회장을 비롯해 기술심의회 임원과 태권도 인사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진 이날 표창 수여식에는 15개 시도지부와 3개 연맹의 추천을 받은 부문별 수상자들이 영예를 안았다.

태권도의 생활체육 유공자로



우수도장상 표창수여식에서 수상자(서울대표 최재무)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최세창회장.

서 성공적으로 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범에게 수여한 우수도장상은 16명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94년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탁월한 지도능력을 인정 받은 지도자 18명이 지도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지난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한 18명의 선수에게는 경기상이 수여되었다.

(수상자명단 : 행사기록)

기술심의회 규정 개정 및 임원(의장 김인석) 임명장 수여식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17일 올림픽 파크텔 2층 홀홀이룸에서 개최된 94년도 결산 이사회에서 기술심의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여, 3개 특별위원회

및 4개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고 3개 분과위원회를 개칭하는 것을 골자로한 기술심의회 규정을 개정하였다.

협회의 각종 사업의 실행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심의회 의 규정 개정은 올림픽 종목 채택의 후속조치로서 이론 및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도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직 강화의 필요성 및 21세기의 도래와 세계화 물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책 수립의 필요에 의해 기술심의회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기술심의회 규정 개정은 기존 기심회의 골격은 유지하되 조직의 구성을 경기 운영과 관련된 분야, 무도적 가치 발전을 위한 분야, 21세기 및 세계화 관련 분야로 확대 개편되었다.

분과위원회는 11개에서 15개로 증설하였다. 특히 15개 분과 위원회를 5개씩 나누어 관장하

는 3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의장단의 부의장 3명이 수행토록 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15개 분과위원회에는 각기 분과위원장, 2인의 분과부위원장, 8인 이내의 분과위원을 두어 기심회 전체 인력을 현재 136명에서 169명으로 증원하였다.

김인석의장을 비롯한 기술심의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3월 4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 의 장 : 김인석
- 부 의 장 : 이영근, 안영택, 김경지
- 지도위원 : 박부철, 박덕규, 한철유, 이규정, 노상석, 고국환, 전성환, 고철성, 배성실
- 기획조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 김대연
부위원장 : 김충근 강성철
위원 : 이봉학, 정정식, 김원기, 안정희, 최완길, 엄종섭, 신병현, 황세연
- 연구개발 분과위원회
위원장 : 조근종
부위원장 : 손천택, 조광민
위원 : 고영철, 강형기, 고영완, 김홍배, 김경섭, 이선장, 장 원, 양희정
- 사업 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현섭
부위원장 : 김기용, 김성배
위원 : 이동한, 윤여근, 김경모,

태권도 소식

유상열, 이용길, 최명수, 김상철, 심재권

○ 홍보 분과위원회

위원장: 윤종완

부위원장: 이은송, 김영선

위원: 이현노, 이동수, 손용덕, 김성철, 임성근, 조정희, 김성중, 박세태

○ 국제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승국

부위원장: 김화룡, 장용갑

위원: 김영수, 안용규, 강태선, 김인식, 이만우, 장종부, 장종위, 임종환

○ 경기 분과위원회

위원장: 양영모

부위원장: 김갑식, 라동식

위원: 김홍식, 최주수, 이상근, 현석주, 서동민, 김정일, 정상기, 이정연

○ 심판 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용길

부위원장: 심명구, 조한우

위원: 장세백, 최봉호, 최복현, 강석환, 차청훈, 송우길, 장명수, 정창영

○ 상벌 분과위원회

위원장: 오함숙

부위원장: 김대용, 이천수

위원: 배희동, 양천석, 진장환, 선우진, 박기형, 박석암, 이주훈, 박종필

○ 경기력향상 분과위원회

위원장: 최영렬

부위원장: 진중의, 황영갑

위원: 유수철, 김영희, 권오민, 이재봉, 문원재, 전정우, 한홍식, 권혁중

○ 기록 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규인

부위원장: 김경찬, 강대인

위원: 최유림, 신동진, 최성록, 성임제, 최상구, 김진희, 최명수, 김동임

○ 경연 분과위원회

위원장: 유문규

부위원장: 김석련, 이백운

위원: 홍연화, 홍종배, 장이식, 민준원, 전익기, 이한균, 임광열, 장수영

○ 심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조호철

부위원장: 김군수, 임종민

위원: 오수곤, 오해근, 김종오, 이규수, 김택수, 엄영섭, 강승길, 윤의식

○ 도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강세형, 조 청

위원: 김선훈, 이희우, 황용택, 이영남, 김병숙, 정철훈, 배석출, 황성수

○ 교육 분과위원회

위원장: 박창덕

부위원장: 한상진, 임택중

위원: 최정호, 고인태, 이해권, 나봉순, 배지영, 김상철, 설동엽, 오원길

○ 여성 분과위원회

위원장: 김강인

부위원장: 박필순, 정효심

위원: 김준태, 박영수, 박기정, 김지숙, 박정옥, 김영옥, 안연순, 최승옥

협회 장학생 36명 선발

대한태권도협회는 3월 4일 을

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경희대와 용인대 태권도학과 성적 우수자 및 국내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중고등학교 학생 등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8백 6십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3월 4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중학생 10명에게 각 10만원, 고등학생 20명에게 각 20만원, 대학생 6명에게 각 6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명단 : 행사기록)

경기규칙 강습회 실시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각 팀의 코치 및 감독, 심판자격소지자들을 대상으로 3월 3일과 4일 이틀간 경기규칙강습회를 실시하였다.

통일된 경기규칙 아래 태권도 경기의 원활하고 공정한 운영을 꾀하고 경기장내 판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태권도 경기규칙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는 협회는 태권도 지도자들의 지질향상을 위해 서명된 전 문교부장관(충남대 전총장)의 “지도자의 자세”를 주제로한 특별강연 시간을 마련, 수강생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경기규칙 강습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3월 3일은 심판자격소지자 300여명, 3월 4일은 코치 및 감



95년도 상임심판원으로 선발된 심판원들

독 30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본 교육 수료생들은 올해 각 팀의 코치 및 감독으로 임원 등록을 하고 활동하게 되며 심판 자격소지자 수료생들 중 80여명의 상임심판원을 선발하여 올해의 각종 대회에 심판으로 위촉하게 된다.

상임심판원 선발, 교육 실시

경기장내 판정시비를 없애고 심판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90년도부터 상임심판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는 95년도 상임심판원 80명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국내의 심판자격소지자는 1급 278명, 2급 823명, 3급 6308명 등 총 7409명으로 지난 3월 3일 경기규칙 강습회를 수료한 심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기술심의회 추천을 통해 상임심판원을 선발하였다.

3월 11일 한국체대 체육관에서 거행된 상임심판원 교육은 공정한 심판 판정을 위한 경기규칙 해설, 심판 수신호, 주부심 컴퓨터 채점기 사용방법에 대한 실기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상임심판원은 올해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 심판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상임심판원명단 : 행사기록)

정광채, 대한체육회 우수선수상 수상

매년, 부문별로 공적이 있는 체육인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대한체육회 표창수여식에서 춘천시청의 정광채 선수가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2월 28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95년도 대한체육회 표창 수여식에서 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정광채 선수는 1994년도에 제12회 히로시마 아

태권도 소식

시안게임 태권도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웰터급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해 제1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했으며 94년도 전국 우수선수선발대회 라이트급 우승을 차지했다.



정광채 / 1972년생. 강동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해 한영중, 관악고를 거쳐 한국체육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춘천시청 태권도부에 소속되어 있다.

서울특별시협회

제15회 교육감기 대회 개최

서울시협회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기원에서 제15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초, 중, 고 단체 및 개인선수권대회 겸 전국체전 서울대표 고등부 1차 선발대회를 개최하였다.

국교부에는 25개팀 85명, 중등부 27개팀 239명, 고등부 20개팀 199명 등 총 72개팀에서 523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강덕국민학교, 사당중학교, 동성고등학교가 각각 부별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 부별 단체성적

▲국교부 : 1위 강덕국, 2위 은천국, 3위 남천국, 장려 하일국, 감투 중랑국

▲중등부 : 1위 사당중, 2위 경수중, 3위 한성중, 장려 용곡중, 감투 자양중

▲고등부 : 1위 동성고, 2위 리라공고, 3위 송곡고, 장려 단대부고, 감투 서울체고

□ 부별 우승자명단

▲국교부 : 박종현(중랑국), 양재혁(상봉국), 김병안(남천국), 백동현(남천국), 김명기(하일국), 이세영(강덕국), 이수환(방학국), 전민영(수서국), 이수경(은천국), 김혜미(은천국), 김정진(은천국)

▲중등부 : 최진우(사당중), 김아연(사당중), 최성호(당곡중), 임재현(경수중), 김대룡(한성중), 김재광(경수중), 민광식(사당중), 이남열(동성중), 한동훈(한성중), 김정태(고덕중), 안윤식(자양중)

▲고등부 : 황정철(단대부고), 박철광(단대부고), 이창석(서울체고), 정균(송곡고), 장순호(동성고), 락병주(동성고), 안용준(리라공고), 한경수(리라공고) (서울 박노규·김종우 편집위원)

부산광역시협회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부산협회는 95년도 첫 행사로

2월 12일 구덕체육관에서 제1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250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생활체육 확산에 기여했다.

합격자별 품단 현황을 살펴보면 1품 1426명, 2품 565명, 3품 148명, 1단 182명, 2단 77명, 3단 55명, 4단 41명, 5단 13명이다.

부산체고, 문체부장관기 전국체고대회 개최

부산체육고등학교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제12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체고 체육대회는 태권도를 비롯해 10개종목의 경기를 펼친다.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대구광역시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구협회는 1월 27일 11시 뉴영남호텔 3층 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산을 통과시키고 95년도 사업 및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신임 감사 선출에서는 한창현, 서보훈씨가 선출되었다.

승품단 심사 개최

대구협회는 2월 23일 95년도

1차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여 총 258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신임 이사 영입

대구시협회는 신임 이사 영입과 함께 상임이사의 개편을 단행하는 등 신임집행부를 구성했다.

● 회 장 : 정상명
전무이사 : 정우득, 총무이사 : 김문화, 심판이사 : 이귀화, 심사이사 : 안영태, 상벌이사 : 우영하, 도장관리이사 : 김인환

(신임 상임이사)
경기이사 : 조용명, 시범이사 : 이혜준, 홍보이사 : 양경덕, 이사 : 안재복, 도정환
(본과임원)

경기분과 부위원장 : 최승호, 권오근, 위무식
심판분과 부위원장 : 배종기, 김윤철
심사분과 부위원장 : 심홍백, 이동열, 이승언
시범분과 부위원장 : 김조진, 김기만, 김웅석

경기, 심판 보수 교육 실시

대구협회는 3월 11일 체육회 강당에서 경기, 심판 보수교육 및 품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일선 체육관장, 태권도팀 감독, 코치, 선수 등 150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품새교육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광주광역시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광주협회는 94년 12월 24일 국민생활관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산을 승인하고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을 심의, 확정하였다.

광주협회는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태권도 관계자 및 일선 관장, 사법들을 초청하여 94년도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를 가졌다.

김주훈회장은 태권도 행사에 적극 협조한 태권도인들에게 공로패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광주협회는 95년도 첫 행사로 2월 5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였다.

총 910명이 응심하여 그동안 같고 닮은 태권도 기술을 펼쳐보였는데 광주협회는 이들 중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응심자 중 품새상 5명, 겨루기상 5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심판 보수 교육 실시

광주협회는 공정한 심판 판정을 위한 경기규칙 해설, 심판 수 신호, 주부심 컴퓨터 채점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심판원들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3월 9일 실시된 심판 보수 교육에는 2급 8명, 3급 72명이 참

태권도 소식

가했다.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대전광역시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전광역시 협회는 2월 24일 대림관광호텔 회의실에서 대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산을 통과시키고 95년도 사업 및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대전협회는 대전에서 개최될 제2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포항에서 개최될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목표로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확보하고 훈련에 임하기로 했다.

(대전 신재홍 편집위원)

강원도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강원도협회는 2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산을 통과시키고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감사선출에서는 장석주, 황보 봉선씨가 유임되었다.

강원도는 3월 5일, 5월 12일, 7월 15일, 9월 15일, 10월 29일, 12월 12일 등 총 6차례의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기로 했

다.

한편 강원도협회는 올해 첫 대회로 3월 11일 제4회 교육감 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승품단 심사 실시

강원도협회는 95년도 제1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3월 5일 춘천 국제체육관에서 실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746명, 2품 281명, 3품 74명, 1단 150명, 2단 68명, 3단 39명 등 총 1358명이 참가했다.

중화민국과 친선경기

강원도협회는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중화민국 태권도협회의 초청으로 중화민국에서 태산고중과 강원도 대표팀 강원체육고등학교 태권도팀간의 친선 태권도경기를 가졌다.

(강원 최문식 편집위원)

충청북도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충북협회는 95년 1월 16일 충북협회 사무실에서 충북 시군 협회장 및 대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산을 통과시키고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심판원 보수교육 실시

충북협회는 도내 심판원들의 자질향상과 95년도 각종 태권도 대회에서 공정한 심판 판정으로 원활한 대회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태권도 심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3월 5일 충북협회 체육관(청도체육관)에서 실시된 심판원 보수 교육에는 70여명이 참가하였다.

충북협회는 95년도부터 상임 심판원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심판원 보수교육 수료생들과 이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충북 소년체전 4월 개최

충북협회는 제24회 충북 소년 체육대회를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청주중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학교 각 시군 태권도 대표선수 220여명이 출전하여 기량을 펼치게 된다.

진천 상일체육관, 한재구, 양원철 표창 수상

3월 4일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수여식에서 충북 대표로 표창을 수상한 영광의 주인공은 우수도장상의 진천 상일체육관 노상일 관장,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지도자상을 수상한 충북체육회의 한재구코치, 우수한 기량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양원철 선수.

특히 우수도장상을 수상한 상일체육관 노상일 관장은 17년전 진천에 태권도장을 개관하여 그동안 태권도 보급에 힘써오는데 동안 수많은 유단자를 배출하여 태권도의 생활체육 확산에 기여한 바 크다. 또한 우수선수를 배출하며 진천군내 태권도 발전은 물론 충북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노상일 관장은 현재 진천군태권도협회 전무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충청남도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충남협회는 1월 27일 11시 세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6개 시군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산을 통과시키고 95년도 사업 및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승품단 심사 개최

충남협회는 2월 19일 대천시 민체육관에서 95년도 1차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여 총 731명의 유단품자를 배출했다.

품단별로 합격자 명단을 보면 1품 343명, 2품 141명, 3품 13명, 1단 141명, 2단 62명, 3단 18명, 4단 10명, 5단 3명이다.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전남협회는 94년 12월 17일 전남체육회관내 3층 회의실에서 31명의 재적 대의원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산을 통과시키고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1, 2월 심사서 694명 합격

전남협회는 1월 승품단 심사대회를 전남태권도훈련장 및 목포상고에서 개최하고 총 530명의 유단품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 1품 252명, 2품 96명, 3품 28명, 1단 80명, 2단 36명, 3단 24명, 4단 11명, 5단 3명이다.

2월 25일에는 동부지구 심사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개최하여 1품 112명, 2품 22명, 3품 5명, 1단 10명, 2단 8명, 3단 6명, 4단 1명 등 총 164명의 유단품자를 배출했다.

태권도연구회 총회 개최

태권도 수련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태권도를 지도하거나 관심이 있는 20개 시군의 태권도인 1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남 태권

태권도 소식

도 수련회(회장 김영호)의 정기 총회가 1월 13일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전남협회 김현수 총무이사의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과 세계화의 전망에 관한 특강, 벌교남국민학교 강봉안 교감의 태권도 지도를 통한 인간교육의 가치에 관한 주제 강연, 벌교남국민학교 손재곤교사의 태권도 기본 동작 지도를 통한 정신력 강화 지도방안에 대한 사례연구가 발표되었다.

(전남 한현영 편집위원)

제주도협회

몽골 태권도 대표선수 제주도협회 초청 친선교류

지난 1월 2일부터 18일까지 몽골태권도대표선수들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3회 국제친선대회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매년 여름에는 제주대표선수들이 몽골을 방문하고, 겨울에는 몽골에서 제주도를 방문하여 친선대회를 가져온 제주도협회는 올해로서 제3회 대회를 치렀다.

몽골협회 단장인 자클란트씨는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서로의 우의를 다지며, 태권도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에 의미가 깊다며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을 강조했고 제주도협회 양세훈 회장은 이러한 교류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제주도태권도협회는 1월 7일 오후 5시에 제주도체육회 회의실에서 22명의 대의원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열고 94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을 심의하고 95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고우방 부회장이 추가 선출되었고, 임기 만료된 신임 감사의 선출이 있었는데 김수진, 안영익 감사가 재선출되었다.

유단자 정기총회 개최

제주도태권도 유단자회에서는 2월 18일 오후 3시에 탐라가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94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을 심의하고 95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원선출에서는 김두은 회장을 재선출하였다.

승품, 단 심사대회

정기 승품, 단 심사대회가 3월 11일 오후 3시에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1품 183명, 2품 87명, 3품 12명, 1단 32명, 2단 23명, 3단 18명, 4단 6명, 5단 3명 등 총 364명이 참가하였다.

(제주 김동훈 편집위원)

한국중고태권도연맹

신임 부회장에 박성귀씨, 전무이사에 박종식씨

한국중고태권도연맹은 94년 12월 19일 전체 이사 13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총회가 개최되어 94년도 사업 및 결산 1억 1백만원을 통과시키고 95년도 사업으로 제22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대회(5.6~11, 잠실학생체육관), 제6회 문화체육부장관이 전국남녀 중고태권도대회(8.9~17, 잠실학생체육관), 한국중고연맹 대표선수선발평가전(11월중, 국기원), 국제친선경기대회(96년 1월, 호주)를 개최키로 하고 1억 3백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임원 보선에서는 박성귀 변호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였고 사표를 제출한 김인수 전무이사의 후임으로 박종식이사를 전무이사로 선임하였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신임 전무이사에 정찬모 교수 선임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은 94년 12월 27일 연맹 사무실에서 제적이사 19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 총회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산을 통과시키고 95년도 사업으로 제22회 전국대학개인대회(4.6~8, 국기원), 제18회 회장기 전국대학대항대회(8.24~26, 국기원)를 개최키로 하고 9천 1백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임원선출에서는 그동안 공석 중인 전무이사에 단국대학교 정찬모교수를 선임했다.

(대학 지병윤 편집위원)

재브라질대한태권도협회

제8대 이계준회장 취임

재브라질 대한태권도협회는 94년도 12월 1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7대 김윤식 회장의 후임에 이계준씨를 8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이계준 신임회장은 "2천년 시드니 올림픽에 채택된 태권도가 브라질에 정착할 수 있도록 96년도에 브라질에서 개최될 태권도 월드컵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본국 어린이 시범단의 브라질 시범, 사범컵 쟁탈 브라질 전국대회, 어린이 선도를 위한 태권도 무료 강습회를 실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8대 임원진 명단)

회장 : 이계준
부회장 : 임창선, 박재강
전무이사 : 이신화
경기 기술이사 : 강태종
섭외이사 : 김제진
감사 : 김구한

재독대한태권도협회

제10대 김우선회장 취임

재독 대한태권도협회는 95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백진건 회장의 후임으로 제10대 회장에 김우선씨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백진건 전임회장의 39명의 대의원들과 이우환 대한체육회 서독지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94년도 사업 및 결산을 승인하였다.

임기가 만료된 백진건회장에 게는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한편 신임 감사에는 정용석, 김일권씨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대한**



행 사 안 내

▲ 4월 10일 ~ 15일 : 전국중별 선수권대회 (고등부)

장소 : 잠실학생체육관

참가자격 : '95년도 고등부 선수등록을 필한자로, '95. 4. 10 이전에 전국규모대회 「고등부」에서 입상하지 아니한 자

접수마감 : '95. 3. 31(금) 17:00까지 대한태권도협회(T: 420-4271~3, F: 420-4274)

대회참가비 : 1인당 3000원

대표자회의 : '95. 4. 3(월) 14:00 올림픽회관 1층 회의실

▲ 4월 17일 ~ 19일 : 전국중별 선수권대회 (중등부 및 일반부-대학포함)

장소 : 올림픽 제2체육관(올림픽공원내 펜싱경기장)

참가자격 : '95년도 중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등록을 필한자로서, '95. 4. 17 이전에 전국규모대회 중등부, 대학부, 일반부에서 입상하지 아니한 자

접수마감 : '95. 4. 7(금) 17:00까지 대한태권도협회(T: 420-4271~3, F: 420-4274)

대회참가비 : 1인당 3000원

대표자회의 : '95. 4. 11(화) 14:00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

▲ 4월 26일 ~ 29일 : 제5회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 고교대회

장소 : 국기원

접수 및 문의 :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0335-30-2640)

▲ 5월 6일 ~ 11일 : 제22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대회

장소 : 잠실학생체육관

접수 및 문의 : 한국중고태권도연맹
(562-6597)

▲ 5월 11일 ~ 26일 : 제82기 사범 및 생활체육지도자연수

장소 : 국기원

자격 : 만 20세 이상, 4단 이상자

제출서류 : 연수지원서 1부(사진 3×4:5매)

주민등록등(초)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해당시도협회장 직인날인

추천(지원서상)

지원서교부 및 접수 : 시도협회

기타문의 :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568-3341)

▲ 5월 18일 ~ 19일 : 전국 여자개인선수권대회

장소 : 성동구 체육센터

접수 및 문의 : 대한태권도협회

▲ 5월 27일 ~ 30일 : 제2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장소 : 대전

▲ 6월 12일 ~ 16일 : 제30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향태권도대회

장소 : 학생체육관

접수처 : 대한태권도협회

▲ 6월 19일 ~ 23일 : 제83기 사범지도자연수

장소 : 국기원

자격 : 만 20세이상, 4단 이상자

제출서류 : 연수지원서 1부(사진 3×4:3매)

주민등록등(초)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접수처 : 시도지부

▲ 6월 17일 : '95년도 2차 고단자(6~9단) 승단심사

제출서류 : 심사신청서 1부(2×3:2매)

주민등록등(초)본 1부

8, 9단 응심자 이력서 1부

접수처 : 대한태권도협회

▲ 6월 26일 ~ 28일 : 제7회 경희대총장기 전국남녀 고교대회

장소 : 수원실내체육관

접수 및 문의 : 경희대 태권도학과
(0331-280-2718)

금5, 동1개로 종합우승

임영선/ 한국대표선수단 코치
영복종고 태권도부 코치



제 8회 이란 혁명기념 태권도대회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란 이스파한 피루지 스포츠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12개국에서 14개팀이 출전하여 3일간 열전을 펼쳤다.

한국대표선수단은 감독에 이봉 대한태권도협회 총무부장, 코치에는 임영선 영복종고 태권도부 코치, '94년도 국가대표 8명 등 총 10명이 파견되었다.

이번 대회에 파견된 8명의 한국대표선수들은 모두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무난히 종합우승이 기대되었다.

한국은 대회 첫날 경기에서 핀급과 라이트급에 출전, 핀급의 진승태(한체대)가 첫 금메달을 따낸 반면 라이트급의 양재훈(한체대)이 탈락했다.

핀급 국가대표로 출전한 진승태는 준결승에서 태권도 강팀이자 홈팀인 이란의 바비 아마디를 1-0 판정승으로 따돌린 뒤 결승에 올라 요르단의

모하메드 알하메드를 맞아 날렵한 원발 앞돌려차기와 찌기로 기선을 제압하며 시종일관 주도권을 잡은 끝에 2-0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발력이 뛰어나고 공격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진승태는 93년도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핀급 1위, 94년도 월드컵 핀급 1위, 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플라이급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이번 대회에도 우승을 차지하며 최경량급에서 세계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라이트급에 출전한 양재훈은 예선에서 이란의 파리보조 아스가리 선수(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라이트급 1위)에게 3-4 판정으로 아깝게 지고 탈락했다.

다음날 경기에서 미들급의 이동완(한체대)과 헤비급의 김정규(경희대)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각각 금메달을 따내며 종주국의 위세를 유감없이 떨쳤다.

마지막 경기에서 밴텀급의 조진호(한체대)와 플라이급의 유상문(한체대)이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1개씩 추가하며 총 금5, 동1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94 서울 국제 태권도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조진호는 1차 예선전과 준결승전에서 파키스탄의 쇼드선수와 아프가니스탄의 누리를 각각 KO로 제압한 뒤 결승에서 스페인의 예스파라기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4-1 판정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유럽의 강호 스페인은 금1, 은3개로 종합 2위에 올랐고 이란 대표팀은 금1, 은2, 동2개로 3위를 차지했다. **태권**

남녀 선수단, 뛰어난 기량으로 종주국 위세 떨쳐

문원재 / 한국대표선수단 코치

지난 1월 12~14일까지 이집트 카이로 아호리 스포츠 클럽에서 총 12개국 147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이집트 국제 대회가 열렸다.

한국 대표팀은 이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임원 2명과 남녀 선수 각각 6체급(핀, 헤비 제외), 심판 1명 등 총 15명이 9일 대한항공편으로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일정관계로 런던에서 숙박을 하였는데 엄청난 물가에 새삼 놀라며 하루를 지냈다. 아침 식사를 한후 카이로행 비행기에 올랐다. 런던에서 8시간걸려 카이로에 도착하니 10일 저녁 6시가 되었다. 간단한 수숙을 마치고 나오니 현지 정경어 사범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아랍 전통의 음악을 들으며 한국식당에 둘러 식사를 한 후 선수촌에 여장을 풀고 시합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날 일찍 기상과 동시에 가볍게 몸을 풀고 식사후 오전 훈련을 하였는데 타켓과, 스텝, 전술 훈련을 한후 체중조절과 함께 최상의 컨디션으로 게임을 위한 몸조리에 들어갔다.

12일 경기 첫날 남녀 총 3체급 경기가 있었다. 밴텀, 페더, 헤비 3체급 중 한국은 밴텀, 페더 2체급만 출전하였다.

첫 경기는 페더급의 양재철선수가 예선전에서 팔레스타인, 이집트 선수를 맞아 6:1로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라 요르단A팀 Nawaf선수를 3:1 판정승으로 결승에 진출해 이집트 Mohmond Shalaby선수를 맞이하여 돌려차기와 뒤차기로 득점과 실점을 반복한 끝에 6:5로 판정승을 거두고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번째 경기는 밴텀급 김현용선수가 노련한 경기와 확실한 게임운영으로 쿠웨이트와 카자스탄 선수를 가볍게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김선수는 바레인 Adel Saleh선수를 맞이하여 돌려차기 공격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뒤차리기로 받아차 2회전 1분 10초만에 KO승을 거두며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부 경기는 이집트 국가대표와 클럽팀으로 구성되어 경기력 수준은 그리 좋지 못했다.

밴텀급 진용순 선수는 예선에서 Olempy선수를 맞이하여 빠른발과 돌려차기로 7:0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해 Rania Attia선수를 돌려차기 기술 등으로 9:6으로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페더급 신동선 선수는 Carla Hadad선수를 5:0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해 Randa Saad선수를 오른발 받아차기와 뒤차기로 8:2로 가볍게 판정승을 거두고 여자부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튿날 한국은 3체급(플라이, 웰터, 미들) 경기



한국은 남자 금5 동1, 여자 금 6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를 치루었다. 플라이급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고동완 선수는 예선에서 카자스탄, 요르단 선수를 가볍게 판정승으로 꺾었다. 준결승에서 튀니지 선수를 맞이하여 돌려차기로 몸통 및 얼굴공격을 성공시키며 5:1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뒷차기와 스텝이 우수한 이집트의 Tallat Mabronk 선수와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친 끝에 7:6 판정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웰터급 김경훈 선수는 월등한 신장과 기량으로 예선을 통과한 후 결승전에서 요르단 Mamad Bajab 선수를 맞이하여 돌려차기와 후려차기 기술로 7:6 판정승을 거두었다.

미들급 박종범 선수는 예선을 가볍게 통과한 후 준결승에서 변칙에 능한 이집트 Alaa Ismail 선수를 맞이하여 빠른발과 뒤차기로 유리한 경기운동을 하였으나 주최국 선수의 텃세로 7:7 동점에 우세를 빼앗겼다.

여자부 경기에서 플라이급 이순영 선수는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텝과 적극적인 공격으로 결승에서 Marwa Ramadan 선수에 9:2 판정승을 거두고 우승하였다. 웰터급 조항미 선수는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선수답게 우수한 기량과 난이도 있는 발차기 기술로 예선에서 RSC승을 거두고 결승에서 Sally Hamada 선수를 맞이하여 10:2로 압승을 거두며 이 대회 여자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미들급에서 박선미 선수는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공격을 펼쳐 결승에 올라 돌려차기

와 뒤차기로 역전승을 거두며 9:7로 승리, 금메달을 획득했다.

마지막 날 경기는 두체급이 펼쳐졌는데 한국은 라이트급 한 체급만 출전하였다. 정광채 선수는 예선에서 이집트 Mohamed Isiam 선수를 2회 30초만에 돌려차기로 눈부위를 가격해 KO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해서 튀니지 Hamrony Sherief 선수를 맞이하여 아시안 게임 우승 선수답게 화려한 기술과 화이팅으로 각국 선수와 응원단에게 많은 갈채를 받으며 10:4로 판정승을 거두며 우승하였다.

여자부 강해은 선수는 예선부터 연속 KO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라 Rana R. Ngieb 선수를 압도적으로 공격한 끝에 9:4로 판정승을 거두며 우승을 하였다.

이로써 한국팀은 남자 금5 동1, 여자 금 6개로 중주국의 위상과 면모를 보였다.

한편 이번 시험기간 동안 영상판 내외분께서 직접 나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현지 교민들도 저녁 오찬과 함께 매 경기마다 열띤 응원을 해주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한국팀은 이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난이도 있는 기술훈련과 체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였다.

끝으로 한국팀을 위해 수고하신 이집트 집행부와 정기영, 임한수 사범님께 감사를 드린다. **태권**

태권도인들의 「후속작품」을 기대하며

지난 1월말 이란 이스파한에서 열린 제8회 이란혁명기념국제태권도대회에 선수단과 동행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확인한 것은 ‘세계화’를 이룬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이었다.

이란 연맹의 관계자는 물론 대회에 참석한 각국 관계자들은 종주국 선수단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최신정보를 얻어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바빠 움직였다. 경기장이나 거리에서 만난 일반인들의 한국선수단에 대한 관심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일종의 경외감까지도 담겨 있었다.

3일간의 대회기간 동안 피루지 스포츠홀에는 연일 3, 4천여명의 관중이 스탠드를 가득 메웠다.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아스가리라는 이란선수는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기량이 한 수 앞선 한국선수단의 인기는 대단했다. 경기중 묘기가 나올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검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가진 어린아이들이 경기가 끝나면 물밀듯 밀려와 선수단 버스를 에워싸고 사인공세를 펼쳤다. 헤자브(이슬람여성의 고유 의상)를 입은 여성 팬들은 아이들을 시켜 쪽지를 보내며 은근한 방법으로 구애작전(?)을 폈다.(물론 이슬람문화가 엄격히 적용되는 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한 데이트신청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순간 지난해말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KBS배 국제태권도대회가 떠올랐다. 개회식 때 유례없이 대통령님이 직접 나와 축사를 한 것을 비롯, 각국 IOC위원들과 국내외 체육인들이 대거 참석한 규모있는 축제였다. 그러나 그것도 한 순간. 다음날 현실은 드러났다. 2, 3백명쯤 됐을까. 선수들이 토해내는 거친 숨결로 한껏 달아오른 매트와는 대조적으로 관중석은 초라하리만큼 쓸렁했다.

태권도가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뒤 국내

에서는 한번의 국제대회와 두차례의 태권도관련 행사가 있었다. KBS배와 협회가 개최한 '태권도 한마당', 그리고 세계연맹이 주최한 '태권도인의 밤' 행사가 그것이다.

'태권도한마당'은 집안잔치였다. '태권도인의 밤'은 총리와 정계계인사, 체육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 성황을 이뤘다. 태권도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지만 역시 일과성 행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마디로 외화내빈(外華內貧)- 세계화를 이룬 태권도의 한 단면이다. 국내에서는 일반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면 '귀빈대접'을 받는, 한번 행사가 열리면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걸으려는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실속은 없어보이는.

94년 9월 4일.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IOC총회에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한국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다른 스포츠가 100년 걸려서도 이루지 못한 '세계화'를 20년만에 이뤘다며 태권도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감격스러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후 7개월 가까이 지났다. 신문 방송에서 톱으로 다뤄지던 태권도에 대한 취재열풍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잠잠해졌다. 국민적 축제분위기도 급세 시들었다. 적어도 걸으려 보기에 그랬다.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 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권도관계자들을 만날 때면 물어봤다. 정말 궁금했다. 기자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

절문이 당돌하다 느꼈던지 대부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겠느냐는 무언의 표정도 읽을 수 있었다. 나오는 대답은 한

결같았다.

"글세 기다려보면 뭔가 나오겠죠."

허전했다.

협회나 세계연맹이나 세계화에만 매달리다보니 정작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태권도인이 인정하는 현실이다. 국내경기의 활성화방안, 경기력 향상 특히 더이상 세계정상이라 말할 수 없는 여자선수들의 육성, 이원화된 규정통일작업, 모든 태권도인의 꿈인 태권도전당 건립문제, 세계연맹-협회-국기원으로 삼원화된 태권도관련단체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더욱 아니다. 충분한 의사교환과 여론수집 작업을 거쳐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 태권도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7개월이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적어도 산적한 문제를 풀어낼 몇가지 방안이나 태권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정도는 나왔어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도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됐는데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은 마무리된 것인가'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게 뻔하다.

물론 태권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라곤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이같은 전적으로 기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다. 뭔가 뜨끈뜨끈한(?) 것을 찾다니고 대문짝만하게 쓸만한 화제거리나 사건에 집착하는 생리를 가진. 그래서 손에 잡히는 뭔가를 기대하는.

그렇기에 기자가 느낀 허전함의 절반은 내부에 갇숙히 들어가 태권도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기자의 게으른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나머지 절반에 대한 답답함을 털어놓는 것이다.

하나만 의지하 태권도를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는 '폐거'를 이룬 태권도인들의 '후속작품'을 기대해본다. **EHZ**

운동과 약물복용 - 도핑

김철준/ 의학박사

88 서울올림픽에서 육상 100m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라이벌 칼 루이스를 제치고 우승한 벤 존슨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스타나졸론을 복용한 것으로 판명되어 금메달을 박탈당한 충격적 사실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데 지난해에는 히로시마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중국선수들의 집단 약물복용 사실이 밝혀져 운동선수들의 약물중독이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어느 체육학자가 우리나라 대표선수 및 우수선수 중 15.8%가 도핑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우리에게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올림픽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였으나 오늘의 올림픽 경기를 비롯한 각종 경기대회는 참가국 또는 참가선수간에 지나친 메달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우승한 선수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가 주어짐에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위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선수들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968년 그레노블 동계올림픽때부터 약물검사로 선수들의 약물남용을 규제하게 되었다.

도핑이란 운동경기에서 그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와 유사한 물질을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선수들의 약물남용에는 첫째 알콜, 마리화나, 코카인 등 쾌락을 얻기 위한 것, 둘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것, 셋째 진통항염제, 마약성 진통제 등 경기력을 유지, 지속시키기 위한 것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할 때에는 보다 강한 힘을 얻거나 산소섭취능력을 증가시키거나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금지약물의 대부분은 보다 큰 힘을 얻기위하여 사용되는 약물들이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그 대표적인 약물이다. 현재 IOC가 금지하는 약물은 100여종에 이르며 이러한 약물들의 인체대사산물까지 포함하면 300여종이나 된다. 이에 는 흥분제, 마약성 진통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베타차단제, 이뇨제가 포함된다.

자극제

자극제를 사용하면 경기중 경쟁심, 호전성을 증가시키며 피로감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판단력이 흐려져 경기중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다른 선수를 해칠 수 있다. 암페타민은 교감신경 흥분제로서 경기력의 증가나 피로감을 감소시키거나 체중조절을 위한 식욕감퇴를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의 부작용으로는 떨림, 불안감, 불면증, 정신착란, 신경과민증, 흥분, 정신병 등의 중추신경증상이 문제가 된다. 카페인이나 에페드린 등도 금지약물에 포함되어 있어 무심코 복용한 감기약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카페인 은 경기전 2시간 이내에 1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경우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기관지천식의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많은 약제들은 에어로졸이나 흡인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마약성 진통제

운동선수의 통증이나 부상으로 인한 운동장애를 없애 경기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게 되므로 남용되고 있으나 이들 진통제는 진통 효과이외에 습관성이 생기고 호흡기능 등 다른 신체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통 및 소염을 위해서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며, 감기약, 진통제 중에는 코데인 등의 마약성 약제가 혼합된 복합제제가 많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 프로카인 등의 국소적 사용은 허용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력과 순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다. 따라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역도,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등이나 100m 등의 단거리 선수들 또는 여자선수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 부작용으로는 심리적 변화, 간독성, 심장혈관계장애, 성장저해, 리비도저하, 생식기능장애 등이 있다. 코티코스테로이드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피부질환, 안질환 등에 국소적으로 사용하거나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흡인요법으로 사용하거나 국소적으로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베타차단제

베타차단제는 원래 고혈압이나 협심증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나 고도의 정신집중을 필요로 하는 사격, 양궁 등에서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심박수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심박수를 무려 분당 30회 이하로 낮춰 박동과 박동사이의 정적인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거나 활시위를 당기게 된다. 과거에는 의사의 처방이 제출되면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서울올림픽때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뇨제

이뇨제는 역도, 권투, 유도, 레슬링 등 체급경기의 선수들이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가 많으며 때로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경우 요중 약물 농도를 빨리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혈액도핑

산소섭취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혈액도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혈액도핑은 혈액중 혈액소의 농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개 800~1200ml의 혈액을 경기 6주전에 채혈해서 보관하였다가 경기 1~2일전에 재수혈하는데 이는 수혈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약물검사

세계에는 IOC의 인준을 받은 도핑검사센터가 20여개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핑검사센터도 IOC의 인준을 받아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경기대회에서 그 우수한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서울올림픽의 경우 전 경기종목에서 금, 은, 동메달리스트는 물론이고 6위이상자까지 결승경기가 끝난 후 약물검사에 출두시켜 소변을 75cc 채취한다. 채취된 소변은 두개의 병으로 분리되어 검사와 IOC의무위원회에 보내지는데 도핑검사센터는 시료 인수후 24시간 이내에 분석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여기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낸 시료는 의무위원회에 보관된 시료로 재검사하는데 관련 선수와 의사 등이 입회하여, 계속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청문회를 열어 운동선수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다. 그리하여 의도적인 약물사용으로 판명되면 기록몰수, 메달 박탈 등과 함께 3개월~3년의 출전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되고, 2번 이상의 위반을 할 경우에는 평생 출전 금지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분석법은 아주 예민하여 7~8개월전에 주사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검출해 낼 수 있다. 한편 일부 선수들은 약물복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약물배설을 지연시키거나 위장하기 위해서 프로베네시드, 성장호르몬 등을 병용하기도 하고 배설을 촉진시키고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다량의 물을 섭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

제1과

“<태권도>란 무엇일까요?”

태권도의 개념과 정신

김영선/대한태권도협회 홍보분과 부위원장

태권도의 모습, 태권도의 개념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어린이 여러분. “<태권도>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태권도가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 것 인가요? 여러분 중 누구도 쉽사리 대답을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오래한 어린이라 하더라도 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나요?”를 물어보면 모두들 어렵지않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애들과 싸우게 되면 이길 수 있으니까요.” “힘을 기르려고요.” “호신술을 배우려고요.” “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몸이 튼튼해지니까요.” 등등 그 대답은 개인마다 갖가지입니다. 또 “유명한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어린이도 있는가 하면 친구들을 사귀니까 좋아서 태권도를 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재미있어서요.” “멋있잖아요.” “부모님이 시켜서요.” 처럼 별다른 이유 없이 도장에 나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밖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태권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태권도가 무엇인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질 못합니다. 비단 어린이 여러분들 뿐 만이 아닙니다. 태권도를 잘하는 대학생 형들조차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대충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말로 간단히 표현하려면 잘 안되는거죠. 설사 나름대로 대답을 하더라도 태권도의 부분적 모습을 묘사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태권도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

니다. 태권도가 지닌 다양한 성격과 그 모습을 짧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태권도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태권도란 무엇일까요?

“태권도가 뭘까?” 하는 의문이 생기면 누구든 그 모습과 내용을 생각해보야 하겠죠. 그러면 태권도의 모습이 머리 속에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같은 것을 어려운 말로는 [개념(概念)]이라 부릅니다. 눈으로 태권도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가 아니면 TV나 책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등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각기 다른 개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개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태권도가 무엇이다.”라고 간단하게 한 문장의 글로 표현하는 것을 정의(定義)라고 합니다. 개념과 정의 같은 낱말들은 위 학년에 가면 많이 쓰이므로 이 기회에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권도의 정의는 여러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대체로 비슷하면서도 차



이도 많습니다. 정의한 사람마다 강조하는 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글을 쓰는 이 사람은 태권도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태권도란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무기를 쓰지 않는 (맨손) 격투기 형식의 한국적 운동이다.” 또는 폭을 넓혀서 정의하면, “태권도는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 신체운동(체육)이며 발차기를 위주로 하는 호신적 무예스포츠이며 인격완성을 추구하는 무도(武道)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정의를 통해 태권도의 모습이 쉽게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아마 태권도를 하는 어린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하지만 정의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태권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루는 내용을 한 문장씩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 태권도는 격투를 하기 위한 (맨손무술)이다.

이 정의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권도가 무술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태권도 수련시간에 하는 모든 동작들이 [격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발차기나 기본동작, 품새, 격투기 등 어떤 것이든 상대와 맞서 싸우는데 사용되는 공격과 방어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는 발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면서 되받아치는 기술이 장끼(특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발차기 기술은 태권도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데 큰 몫을 담당했죠. 발의 힘이 주먹보다 3배나 강하고 먼 거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발차기는 많은 무술가들이 익히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또한 태권도는 무기를 쓰지 않고 맨 주먹과 발을 사용하므로 방어적인 호신술로도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보디가드(경호원)들이 위험한 무기를 쓰지 않고 범법자를 제압하는 기술로 활용됩니다. 또한 군인들이 무기가 없을 때 맨손으로 적군과 싸



우는 백병전으로 훈련되고 있는 것이 태권도 같은 맨손무술입니다.

*** 태권도는 다른 무술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잠깐 태권도가 다른 무술과는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른 지를 살펴봅시다. 그 첫째는 무기를 쓰지 않는 점에서 검도와 같이 칼(또는 목검)을 이용하는 무술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신체에서 강한 부분인 주먹이나 발, 팔꿈, 무릎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약한 부분 즉 가슴을 공격

하는 기술이 태권도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치는(타격)동작을 채용한다는 점입니다. 유도나 레슬링, 합기도는 상대를 잡아서 꺾거나 넘기고 조르는 동작을 주로 합니다만, 태권도는 피하거나 차고 치는 등의 몸 움직임을 사용합니다. 인체의 가슴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상대를 물리치는 격투기입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은 발을 이용한 차기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어린이가 여러분들이 태권도 연습 시간에 많이 느낄 것입니다. 다리를 뻗어서 풀어주는 준비운동을 끝내면 여러 가지 발차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 상대방과 맞서는 겨루기를 통해 발차기를 응용해 보는 실전 연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상체 기술을 쓰는 다른 중국무술이나 복싱, 가라데 등 격투기와 나누어집니다. 다리를 즐겨 사용하고 발감각이 잘 발달된 우리 민족의 재주가 이 세 번째 특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싸움을 잘하고 싶다”는 어린이에게 드리는 글**

어떤 어린이는 싸움을 잘하기 위해 태권도를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는 얼마전 TV에서 한창 인기를 끈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조직폭력배 두목이 멋있다고 장차 회망직업으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감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멋있고 화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이 동경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싸움을 익히기 위해 태권도 검도 복싱 같은 격투기를 익혀 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태권도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불의를 행할 때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신과 주변사람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받는 큰 번을 당할 때만 맨손으로도 싸워야 하겠죠.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싸움이든 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권도의 참된 뜻은 폭력을 피해 가는 데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무력을 사용해서 남을 위협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태권도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태권도를 하면 싸움을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을 잘하려고 태권도를 하지 않습니다. 힘과 격투능력을 기르되 오히려 폭력을 피하는 것이 그 참된 길입니다.

두 번째 개념 :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운동)이다.

태권도가 훌륭한 운동 종목이 되는 것은 직접 수련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태권도는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되받아 치고, 차는 훈련에서 몸통 전체와 팔 다리를 골고루 사용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기술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체조와 뻗치기 등 준비운동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준비운동은 본격적인 기술 훈련에서 정확한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순간적으로 큰 힘과 빠른 속도를 무난히 행하게 만듭니다. 태권도 같은 운동은 체력을 발달시킬 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성격 형성에도 관계합니다. 기본동작과 품새 연습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집중하여 마음을 가다듬도록 합니다. 잘 짜여진 분위기에서 태권도를 하면 참을성 있고 차분한 성격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땀을 적당히 흘리는 기분 좋은 운동을 하면 몸에 피가 잘 돌아서 기분도 상쾌해 집니다. 그 결과 잠도 깊어 잘 자게 되고 밥맛도 좋아져서 근육에 힘과 탄력이 생겨납니다.

운동을 잘하고 태권도 실력이 좋아지면서 심리적인 로도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 적극적인 성격을 만들어



줍니다. 이같은 이점 때문에 의사들마다 운동은 꼭해야만 한다고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강습을 받기에 편리하고 이왕이면 자기 몸을 지키고 썩씩해지는 한국적 전통의 운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래 전 학교 교육의 한 종목으로서 태권도가 지정되었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태권도장에 보내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개념 : 태권도는 한국에서 발달한 [스포츠 경기]이다.

지난해 1994년은 격투경기로서는 테슬링, 권투, 유도에 이어 태권도가 네 번째로 올림픽 종목으로 등록하게 되었죠. 이제 태권도하면 “아! 그거. TV에서 본 발로 차고 하는 경기 말이지.”하는 말을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수한 세계 스포츠 경기 대열에 태권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올림픽 채택을 계기로 태권도는 이전의 무술과는 다른 쓰임새로 스포츠 경기 영역을 개척하여 수련자들이 자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선수나 지도자 등 경기인으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주요한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경기적인 면이 두드러질 때에는 격투기적 성격이 다소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 격투와 경기는 수련자의 목적의식과 기술의 내용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와 맞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하는 전투와 같은 것이 무제한 격투이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냉혹한 싸움입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치거나 상대를 잡는다는지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잔인한 싸움이라면 무시되지만 경기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반칙기술을 사용하면 경고를 받고 심한 경우는 경기를 못하게 됩니다.

태권도 경기는 격투 형식을 빌면서도 선수들의 안전성과 승부 방식을 고려하여 기술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한 경기 규칙에 의해 태권도 경기가 성립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장에서 하는 겨루기는 무차별 격투가 아닌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대를 차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여 겨루는 허가 받은 승부 방식의 경기 겨루기입니다. 격투무술로서, 건강운동으로서, 정신수양법으로서 존재해 온 태권도가 이제 경기적 성격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개념 : 태권도는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무도)이다.

이 개념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울 지 모르겠습니다. 태권도의 마지막 개념으로 “군셀” 무(武) 글자와 “길” 도(道)자가 합쳐진 [무도(武道)]로 말할 수 있는 데, 이 낱말의 뜻은 “격투기 훈련을 통해 사람이 가야할 올바른 길”로 풀이됩니다. 태권도는 무도의 하나로 간주되지만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서양격투기는 무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기술 훈련과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 완성과 삶의 근본을 찾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태권도의 무도적 성격은 인간과 세상을 보는 관점은 불교, 유교, 도교 등의 동양사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다음 장에 설명되는 태권도 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태권도의 보이지 않는 알맹이, 정신과 철학

태권도에서 정신과 철학을 강조하는 까닭

태권도의 몸체가 운동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몸체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무도와 연관되며 정신 또는 철학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농구나 야구와는 달리 태권도에서 유난히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태권도가 여러분을 다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격투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운동처럼 즐기는 놀이가 아

니고 자기자신을 수양하는 무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배워서 못된 일에 사용한다면 태권도는 그 사람에게 나쁜 역할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태권도는 칼과 갈아서 물건을 자를 때에는 더없이 필요한 좋은 물건이지만 강도가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래서 가능한 한 태권도가 올바르게 쓰여야 하는 역할을 정신이나 철학이 담당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정신적 성숙에 태권도가 바람직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과 철학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권도 정신은 무엇일까요.

태권도 정신도 정의와 마찬가지로 말하는 사람마다 사뭇 다릅니다만 여기서는 태권도 정신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태권도 정신의 하나는 예의범절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한국 전통 유교의 영향으로 예(禮)는 태권도에서도 자주 말해지고 있습니다. 예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인데 인사가 밝고 공손한 말씨를 쓰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등으로 나타납니다. 사범님께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배웠습니

다" 등의 인사 예절을 통해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게 합니다. 상대와 몸을 부딪치는 거루기 중에 생기는 감정을 푸는 역할도 예절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예절과 정중한 행동을 습관화시키되 형식적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태권도 정신은 평생동안 태권도를 연마하는 인내심과 의지력을 포함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인내력은 우리가 넘어야 할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정신과 힘의 효과를 올리는 집중력과 침착성 등도 태권도 정신에 속합니다. 태권도 기술을 수행할 때 마음 상태의 조절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흐트러지기 쉬운 거루기 상황에서 굳센 마음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이 태권도 정신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태권도 정신의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불교·도교 등의 동양 종교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인간과 자기를 둘러싼 주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무도가 행해 있기도 합니다. 이같은 무도적 태도와 태권도 정신으로 씩씩한 한국의 얼과 기상을 가다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운동 정신인 스포츠맨십(경기자정신)이 태권도 경기에서도 존재합니다.

태권도 경기에도 정신적인 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서양에서 도입되긴 했지만 경기자에게 올바른 행동 원칙을 제시하는 (경기자정신(스포츠맨십))이 있습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뿐 아니라 공정한 판정을 해야 하는 심판까지도 경기자정신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특히 상대와 맞부딪쳐 차고 치는 태권도 거루는 경기에서 상대를 다치게 하는 반칙을 삼가고 비겁한 행동(더티 플레이)은 물론 상대에 대한 예의와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스포츠맨십의 기본 자세입니다.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는 분투정신과 승부에서 이겨도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고 저서도 비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스포츠맨십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 된 이 마당에서 과열 경쟁과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 혹시나 스포츠의 본 정신에 역행하는 사태가 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올림픽에서 새로 탄생한 종목인 태권도가 스포츠 원래의

멋진 스포츠맨십과 결합하여 세계인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태권도의 쓰임새는 수련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자신을 방어하고 몸과 마음을 닦는 무예스포츠로 애용되고 있고 비교적 안전하고 신사적이며 박진감 있는 이유 때문에 올림픽 경기로도 지정되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태권도의 개념과 그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어 이 사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몸도 튼튼해야 하고 여러분이 지닌 개별적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즐거운 생활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태권도**

다음호 순서

제2과 : 태권도의 역사

제3과 : 품새—정의, 수련 목적, 종류, 창작 품새

제4과 : 격파—정의, 목적, 특성, 격파의 방법

제5과 : 호신술—개념, 목적, 종류 및 실제

제6과 : 태권도의 단, 품 심사

제7과 : 태권도의 경기

제8과 : 태권도의 장비

태권가족



이 향원





나도 알아요

김병규/ 동화작가



“아, 저 울보!”

해나가 울어도 이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
다. 걸핏하면 울어대니 온 식구가
절린 탓입니다.

해나의 우는 솜씨가 어느 정
도인지 들어 보실래요? 조금만
뭐가 못마땅해도 다짜고짜로 으
앙 소리부터 질러 놓고 보는 아
이랍니다. 시골에서 외할머니가

오시면 그 곁에 누가 얼쩡거려
도 칭얼거렸습니다. 밤 사이에
곰개 핀 꽃을 보고도 울음을 터
뜨렸습니다. 짹짹가는 탁
상 시계의 초침이 얼른 멈추지
않는다고 발랑 누워 발버둥쳤습
니다. 거울 속의 제가 먹고 있는
바나나를 빼앗아 달라고 짹짹거
렸습니다. 지붕 위의 비둘기들
이 손짓을 해도 마당에 내려오

지 않는다고 온종일 울어 댔습
니다.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졸
랑졸랑 따라 다닌다고 잉잉거렸
습니다.

어쨌든 갓난아기 때는 해나의
울음 덕에 뺨질나게 셋방을 옮
겨다녔으니, 알아줄 만하잖아요.

어쩌다 해나가 낮잠을 자 집
안이 고요하면, 주인 아주머니
가 고개를 빼죽 내밀고 물었습
니다.

“오늘은 웬일이야?”

그러면 엄마는 턱짓으로 해나
를 가리키며 소리 없이 웃었습
니다.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그
렇게 친진스러운 수가 없었습니
다.

이렇게 지독한 울보로 소문이
났으니, 집안 식구들은 해나가
어지간히 울어도 예사로 여겼습
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해나는 낮
잠을 자다가 정말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좀나비 한 마리가
문틈으로 날아 들었습니다. 나
비는 화분의 꽃들을 모조리 야
금야금 뜯어먹었습니다. 그러자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
다. 눈도 뒤룩뒤룩해졌습니다.

방안을 두리번거리던 나비가 해나를 노려보았습니다. 해나는 그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뜩이나 집을 집어먹고 있는 해나를 향해 나비가 두 날개를 펼럭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해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
니다.

그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
습니다.

“딩동, 덩동, 덩동.”

해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욱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그때사 엄마가 모퉁이 수도가
에서 물 묻은 손을 치맛자락에
훔치며 나왔습니다. 우는 해나
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대문
앞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좋은 꽃이 있습니다. 좀 사서
요.”

해나는 꿈에 나타났던 그 나
비라는 생각이 대뜸 들었습니
다. 엄마가 문을 열면 큰일입니
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였습니다.
해나는 울음을 딱 그치고 문구
멍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딴 집에 가 봐요.”

엄마는 이렇게 대꾸하며 돌아
섰습니다. 해나는 정말 다행이
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
니다.

엄마는 시침을 떼고 빨래를
마저 하려고 수도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눈치를 챈 해나
는 다시 숨이 넘어가듯 울어냈
습니다.

“멀쩡한 녀석이……”

엄마는 못 이기겠다는 듯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방문을 열

자 해나가 와락 매달렸습니다.

엄마는 해나를 덩석 안고 문
지방에 걸터앉아 점점 커지는
수도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해나는 무서워 우는 데도 모
르는 체하는 엄마가 야속했습니
다.

엄마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
보다, 문득 자신이 특하면 울어
밟상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이 떠올랐습니다. 해나가 이런
의심을 품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떨 때 우나 한 번
봐야지……’

해나는 속으로 단단히 별렀습
니다. 그러나 좀처럼 엄마가 우
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나네가 새 집을 마련해 이
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알뜰히 살림을 꾸린 덕택에 아
담한 집을 살 수가 있었답니다.

그날, 집안 정리를 대강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태 빈 손가락을 들고 골똘
히 무슨 생각을 하던 엄마가 뜻
밖에도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해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
이었지요.

“사람, 싱겁진…… 이 좋은
날에 왜 우냐?”

“좋으니까 울죠.”

옆에서 빙그레 웃으며 보고
있던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해나는 까만
눈을 깜빡이며 머리를 가웃거렸
습니다. 그러다가 양정맞게 고
개를 까딱이었습니다.

‘아, 나처럼 무턱대고 우는 게
아니라 좋을 때에 우는구나!’

제 마음대로 짐작한 해나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었습
니다.

“엄마, 나도 인형 사 주면 울
게.”

“안 사 주면 우는 게 아니
고?”

“그럼, 사 줘야 울지.”

“애가 그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지 모르겠구나.”

“나도 알아요.”

“뭘?”

“나처럼 아무 때나 울면 울보
고, 기쁠 때 울어야 하는 걸 말
이야. 엄마도 아빠가 집을 사 주
니 기뻐서 울었잖아? 나도 인형
사 주면 기뻐서 울 거야.”

“호호호”

엄마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
며 웃었습니다.

“푸 하하하.”

아빠도 입에서 밥알이 튀어
나오도록 웃었습니다.

해나는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며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태권

약력 / 김병규(金炳圭)

- 1948년 경북 군위에서 태어남
- 한국일보 신춘문예(동화)와 중
앙일보 신춘문예(회고)에 당선
하여 문단에 나옴
- 대한민국문학상 · 소천아동문학
상 · 해강아동문학상을 받음
- 지은책으로 창작동화집 〈나무는
왜 겨울에 옷을 벗는가〉·〈평양
별에서 온 손님〉, 장편동화 〈꽃
골 마을과 키다리 아파트〉·〈그
림 속의 파란 단추〉·〈까만 수
레를 탄 흙꼭두장군〉 등이 있
음.
- 현재 소년한국일보 기자로 일함.

이 도복을 입고 씩씩하게 자라거라

우승한 · 승석 쌍둥이 형제에게 태권도를 수련시키며

박 은 주/주 부

④는 염창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우승한, 승석 두아들의 어머니이다. 우리 아이들은 미국으로 출생했기 때문인지 동년배에 비해 체격이 왜소한 편이다. 또한 낮은 환경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위축되었기 때문에 태권도를 통해 신체의 단련과 자신감을 기르고 자 태권도장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정당한 힘은 곧 정의다”라고 강조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대강 대강 하지말고 뜻을 품었으면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사범님 말씀이 두아들에게 태권도를 수련시킨지 3개월 만에 현실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로서 보다 발전된 부분은 행동에 절도가 있어졌고, 글씨요? 라는 대답대신 예, 아니오가 분명해 졌다는 점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련전과 달라진 생활습관은

첫째, 자고 깨며 문안인사 하기와 아버지가 출·퇴근 하실때 꼭 현관앞에 나와 공손히 인사를 잘하고, 둘째, 체육관에서 하던 버릇으로 현관에 신발을 반듯하게 정돈하며, 셋째, 아주 고쳐진 것은 아니지만 사범님이 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는 노력이 대견스럽기까지하다.

95년 1월 26일 심사때의 일이다.

심사를 받으려고 앞에 나온 한 어린이에게 사범님은 불쑥 그 아이의 생일을 물으셨다. 씩씩하게 대답하자 이번엔 그 어머니의 생신을 물으셨는데 그만 대답을 못하자 즉석에서 「엎드려 뺨치」를 시키고 어머니가 뒤에 계시냐고 묻더니 얼른가



부모님과 함께한 승한·승석이.

서 어머니 생신을 여쭙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후 다시 질문을 해 대답하자 사범님은 “너는 네 생일을 기억하면서 너를 낳아주시고 애써 보살펴 주시는 어머니 생신을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하시곤 “○야! 어머니께 미안하지?”라고 물으시던 사범님의 따뜻한 미소가 기억난다.

지난해 말에는 어린이용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전기를 한권씩 주고 독후감(1~2학년은 원고지 2매,

3~4학년 3매, 5~6학년 4~5매)을 써오도록 한 일도 있었다.

나무를 키우는데는 10년이 필요하고 인재를 키우는데는 100년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현대사회는 어린이들을 무한한 잠재능력을 지닌 가능성의 존재로 보고 그들을 각별

한 관심과 노력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현대의 부모들이 지적발달에만 치중하여 학과공부외에 다른 배움의 길로 인해 하루가 바쁘기만한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이뤄져야 할 올바른 인성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때에 태권도장에서 신체의 단련과 충효정신, 애국정신,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태권도를 배우게 한 것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유치원생은 그들 생활에서의 정의를 있고, 초·중·고등학생들 모두가 그 나름대로 연령에 맞는 사회정 의가 있다고 예를 들어가며 말씀하시던 사범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곳곳하게 호연지기를 심어가기기를 기대해 보면서 봄의 문턱에 서 있는 이 토요일 오후 쌍둥이의 도복을 깨끗하게 세탁해 다림질한다. 이 도복을 입고 승한·승석이가 씩씩하게 태권도를 할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태권**

엄마와 딸이 함께 태권도를 배웁니다

●엄마의 수련기●

딸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자신감 갖도록 태권도를 배우게 하다 어머니 교실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함께 수련

박 화 자/주 부(이애진어린이의 어머니)
어머니태권도교실에서 태권도 수련중

4의 큰딸 애진이는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앉아서 책만 읽으려 했다. 친구들이 뚱뚱하다고 놀린다며 울상이 되곤 하였기 때문에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태권도를 배우도록 했다.

딸 아이가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격도 많이 활발해졌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아이들이 놀리는 것도 줄어들었고 자신이 스스로 놀림도 이겨 나가게 되었다.

얼마후에 딸 아이가 태권도장에 여자 친구들이 없어서 다니기 싫다고 할 즈음 청소년회관에서 어머니 태권도 수련생을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늘 기회가 되면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됐다 싶어 그날로 등록을 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지만 흰도복을 입고 준비운동, 체조를 하면서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재미 있었다.

특히 딸아이가 태권도에 다니기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앞에 안경 쓴 아이가 이애진, 뒤에 엄마 박화자 씨.

싫다는 생각이 바뀌어 엄마와 함께 배우게 된 것을 매우 좋아했고 태권도를 하게 되니 아파도 기뻐했다. 엄마와 함께 기합을 지르고 겨루고 발차기 등을 하게 되니 더욱 자신감

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함께 도장에 가면서 버스타는 법과 노래도 부르곤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 아이가 매우 즐거워 했다.

아이만 도장에 보낼때는 아이가

엄마와 딸이 함께 태권도를 배웁니다

품새니 태극 몇장이니 하면 알아 들을 수 없더니 직접 아이와 태권도를 하게 되니 대화도 잘 통하고 아이가 힘들어 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다.

서로를 잘 알게 되니 아이의 짜증도 많이 없어졌고 아이와 더욱 친근감도 갖게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 특히 아이가 엄마들보다 먼저 태권도를 배워 태극품새를 엄마에게 가르쳐주게 되니까 자신감과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엄마들은 나이를 먹어서인지 품새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아이와 몇번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확실히 익히게 되어 아이나 엄마 모두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아이와 함께 열심히 하는 보람이 컸다.

우리의 무예인 국기 태권도를 배운다는 자부심에 뿌듯하다. 아이에게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길러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때까지 함께 열심히 태권도를 배워야겠다. **태권**

태권도 가족 마당에서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태권도와 관련된 글이나 사진, 그림 등을 보내주십시오.

•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회관 607호 대한태권도협회 홍보과(우 138-678)

• TEL : 420-4271~3

• FAX : 420-4274

● 딸의 수련기 ●

“먼저 배운 제가 엄마에게 품새를 가르쳐 드리면 사범님이 된 것 같아요”

이 애 진/서울공항공국고
2학년 4반

④는 2학년인데 일곱살때부터 태권도장에 다녔다. 동네친구들이 나를 돼지라고 놀려서 내가 매일 우니까 엄마가 속상하시다고 태권도를 가르쳐서 혼내줘야겠다고 하셔서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다.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놀렸는데 내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섭다고 피하거나 놀리지 않게 되었다. 아직도 가끔 놀리지만 이전 아무렇지도 않다. 나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나 태권도장에 여자친구들이 없어서 다니기 싫었는데 청소년 회관에 어머니 태권도가 생겼다. 우리엄마도 등록을 하시고 나랑함께 다닌다.

엄마랑 손잡고 태권도장에 갈때면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노래도 부르며 즐겁기만 하다. 더군다나 엄마와 함께 태권도를 하며 기합도 지르고 겨루기도 하고 시합도 하나까 참 좋다. 지난번 태권도 한마당에서 텔레비전에 우리엄

마와 엄마친구들께서 나왔다. 우리엄마가 자랑스럽다.

내가 먼저 배워서 더 잘하기 때문에 엄마들은 잘 잊어먹는다고 말 씀하시면서 나보고 태권도품새를 가르쳐달라고 하신다. 그러면 나는 신이 난다.

내가 엄마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우습지만 내가 엄마들을 바라보며 품새를 하면 꼭 사범님이 된것같은 자신감이 든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연습을 한다. 사범님께서 똥똥해도 태권도를 참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신다.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배운것이 참 좋했다고 생각한다.

사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권도를 옫은일에 쓰도록 하고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딜수 있는 정신과 집중력을 기를수 있게 되어 어른들께 칭찬을 많이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열심히 더 많이 배워서 튼튼하고 용기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태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며 실천하는 아들이 되길 바라며”

태권도를 수련하는 아들에게

이 중 숙/주 부(김영제 어린이의 어머니)

⊙ 래에 비해서 항상 어리기만 한 영제는 신생아때부터의 화려한 병력(?) 탓도 있겠지만 항상 힘이 없어 보이기에 여러 아이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많았었다. 그래서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 했다.

그런데 영제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93년 6월 영제는 태권도를 시작했다. 영제의 주먹은 한없이 여리고 힘이 없었고 항상 엄마가 옆에 있기만을 바라고 밖이 조금만 어두워도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 태권도를 시작한지 1년반을 넘어서 국기원에 승품심사도 보았고 품계를 매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태권도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항상 마중을 가야했던 엄마의 수고가 없어진 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허약했던 모습을 이 하나둘씩 바뀌어가고 있고 추운 겨울 불이 파랗게 얼면서도 도복하나만을 걸치고 태권도수업을 받으러가는 아이가 되었다.

친구가 주먹만 쥐어보여도 저만큼 도망을 가던 아이가 얼마전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저보다 훨씬 키가 큰 아이와 맞서 싸움을 했다는 것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울음을 터트리기는 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과 맞설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 믿음직스러웠다.

이렇게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신



감도 생긴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모든일에 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아이가 되고 건강하고 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며 실천하는 아이로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사범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변모시킨 태권도

김 영 제/가곡국민학교 6학년 3반

⊙ 래 태권도를 수련한 지 어느덧 1년 9개월이 흘러 우리체육관에서 2번째로 높은 1품이 됐다.

그동안 태권도를 수련하여 달라진 점은

첫째, 체력 단련이 되고 몸이 건장해지고 힘도 세졌다는 것이다.

태권도란 발과 주먹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지키고 정신력을 기르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둘째, 집중력과 기억력이 길러졌다.

태극품새 1장부터 8장까지 외우기란 쉽지 않다. 내가 흰띠였을 때에는 1장도 외우기 어려웠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태극 1장부터 8장까지는 물론 고려품새와 금강품새까지 알고 기억할 수 있으니까 기억력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나는 태권도를 하고 달라진 점이 또 있다.

예를 들면 더 용감해 졌다거나 싸움을 전보다 덜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운동신경이 더 발달했다는 것도 있다.

나는 앞으로 2품을 따기 위해 태권도를 더 열심히 수련할 것이다.

나의 태권도 수련기

“태권도라구?”

주 윤 경/경북여고 2학년



1994년 11월, 그때 난 고등학교 1학년 이었다. 내가 이 때를 회상하는 이유는 그때 태권도를 처음 접했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에 YMCA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농구·배구 등 여러 운동들을 할 수강생들을 모집해 방학동안만 개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겨울방학때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겨울이 되자 반 아이들 사이에서 겨울 방학때 검도를 배우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YMCA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난 매일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다. 매일 나에게 관심 있는 과목의 수강생만 모집한다는 것만

있었는데 하루는 태권도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장소는 청소년회관, 날씨는 월·목·금요일, 시간은 8시에서 9시까지. 이런 내용들 중에서 나에게 하겠다는 의욕과 확신을 준 것은 수강료가 3개월간(태권도를 이해하는 기간) 무료라는 내용이었다.

당장에 전화번호를 옮겨 적고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 회진이에게 의사를 물어보았다. 당시 나는 혼자서 배울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말을 건냈는데 친구 역시 찬성이었다.

하지만 내가 태권도를 배우는데 문제가 있었다. 나에게 의욕만 있으면 무었하나,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

지 않으면 모두 허사인 것을... 하지만 나의 설득력 때문이었는지 부모님은 쉽게 찬성해 주셨다. 특히 아빠는 이왕 시작하면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격려까지 해 주셨다.

당시 우리 학교는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것이 또 한가지 문제였다. 야간자율학습을 빠지려면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다. 하지만 두는 꼭 감고 용기를 내서 담임선생님께 태권도를 배우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담임선생님의 첫말은 “태권도라구?”였다. 역시 나의 담임선생님은 이해심이 넓으셨다. 당장에 야간자율학습을 빼주셨으니까.

이래저래 처음 도장에 발을 들여놓은 날이 11월 28일 이었다.

나와 친구 둘 다 의욕이 컸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하지만 난 태권도를 배우는 한시간 내내 옷을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데 운동이라곤 처음으로 배우는 내가 잘 할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장에 다닌지 4일째 날이던가. 난 의욕만 컸기 때문에 생긴 실수로 발가락을 다쳤다. 발가락이 부어서 사범님이 얼음찜질까지 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아팠다.

부은 발을 보면서 집에 갈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했다. 더군다나 아

나의 태권도 수련기

뽀 여지껏 집에 오시지 않아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난 역시 운 좋은 아이였다.

당시 도장에 차를 갖고 오신 아버씨가 계셨다. 그래서 그 아버씨 차를 타고 집까지 갔다. 그 후로 한 3~4일 정도 아프고 부었지만 심해진 않았는지 금방 나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내가 너무 열심히 태권도를 배웠다는 자부심 비슷한 것이 있었다. 자만심일지도 모르지만.

처음 심사를 보는 날이었다. 여러 꼬마들 사이에서 심사를 보았는데 참으로 창피했다. 심사가 끝난후 난 사범님께 칭찬을 받았다. 가능성이 있다는 그말. 그말은 나에게 태권도를 더욱더 열심히 배우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지금의 난 잊그제 또 심사를 해서 과반때를 따게 되었다. 난 띠가 변하면 그만큼 기분이 좋다.

태권도를 배운 후 나에게 확실한 변화가 있다. 그것은 의욕이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의욕 때문에 난 반에서 뛰는 아이가 되었다.

2학년이 된 나는 학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반 아이들을 아직 잘 모른다. 다른 아이들은 분명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난 정말 손도 번쩍 번쩍 잘 들고 대답도 꼬박꼬박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 눈에 띄는 것이 다.

아이들은 태권도의 가치와 재미를 모른다. 내가 태권도를 배운다고 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다.

“태권도라구?” **태권도**

“좋은 점도 많지만 힘든 점도 많아요”

양 태 규/가곡국민학교
6학년 2반



태 권도는 운동이라 몸만 튼튼해 지는줄 알았는데 수련을 하다 보니 여러가지 좋은점이 있는 반면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다. 우선 좋은점으로는 집중력이 생겨서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며 몸이 튼튼해진다.

또 사범님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는 매우 신이 난다. 그리고 심사 볼때 여러사람 앞에 나아가 여러가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실제 배운 운동에 대하여 실기 등을 보이기 때문에 발표력이 좋아진다. 또 여러사람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

이제 태권도의 힘든점을 이야기 하겠다. 태권도는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다리를 짹 뻗어서 높이 차거나 품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차야 하기 때문에 높이 차지 못하는 아이들은 무척 힘들다.

또 품새를 조금 잘못해서 틀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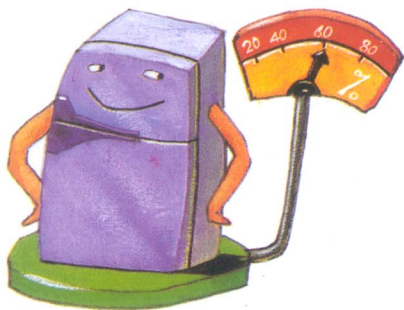
때는 사범님께 꾸중을 듣거나 (요드러 뻗쳐)를 시키는데 하여튼 그렇게 싫다. 그리고 심사때 시끄럽게 굴면 많이 혼난다.

그리고 태권도는 엄청나게 체력을 소모한다.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체력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사범님은 어른들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다.

하지만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재미있는 태권도를 열심히해 검정 띠를 따겠다.



자꾸 열지 마세요



요사이 냉장고가 없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생산되는 냉장고만해도 323만 대(1991년)나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1년내내 켜놓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도 수십 번 여닫을 때마다 에너지의 낭비는 더욱 커집니다.

냉장고가 주는 편리함에 비추어 과연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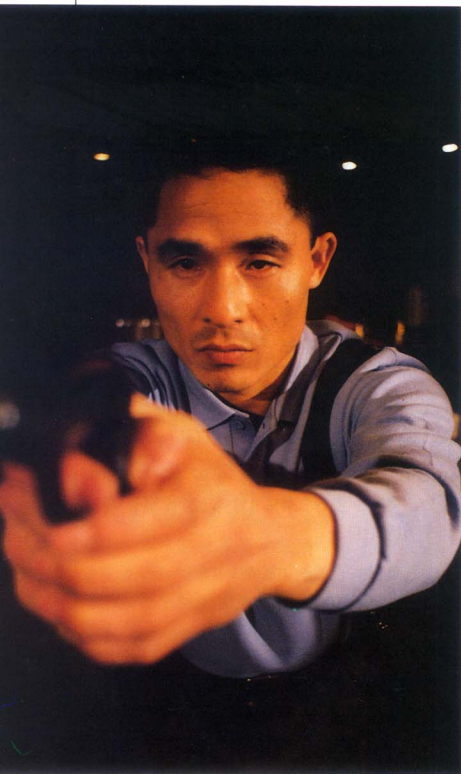
놀라운 환경상식

- ▶ 우리는 하루에 평균 22회 이상 냉장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 ▶ 4백만 가구가 여닫는 횟수를 하루 4회씩만 줄여도 28억원이 절약됩니다.
- ▶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00원의 전기를 지불한다면 그중 2500원 정도는 냉장고 사용료라고 합니다.
- ▶ 4백만 가구가 냉장고 안에 넣은 음식물을 3분의 2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1년에 124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 뜨거운 것은 식혀서 넣습니다.
-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을 때는 60% 정도 채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 방열기에 먼지가 끼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진공청소기로 자주 청소합니다.
- 문에 달린 고무패킹은 오염되기 쉬우므로 자주 청소합니다. **태그**

세계선수권 4연패의 신화 정국현 영화 「태권파이터」 주연으로 화려한 변신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4연패로 태권도 신화를 창조하며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바 있는 정국현 경남협회 코치가 태권도를 주제로한 영화 「태권파이터」의 주연으로 은막에 데뷔했다.

「태권 파이터」는 태권도 한국대표 선수로 명성을 떨친 정국현의 자전적인 내용이다 픽션을 가미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정국현 코치는 사회의 어두운 일각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자라온 청소년들,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비정한 사회에서 매장되고 자신들의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태권도를 통하여 선도하고 태권도 정신을 가르쳐 재생의 길로 인도하는 형사의 역할을 맡았다.

“배우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어보지 못했습니다. 2년전 임선 감독으로부터 태권도영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듣고 태권도 홍보 차원에서 출연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영화에 출연을 하게된 정국현씨는 배우로서 주연을 맡은 것이 아니라 태권도인으로서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태권도 동작 하나하나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애썼다고 한다.

처음 영화에 출연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배우로서의 연기력을 보여주었다는 주위의 칭찬에 정국현씨는 “대사를 외우는 것은 자신이 있었으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대사를 책읽듯이 한다고 얼마나 NG를 많이 내었는지 모릅니다.”고 고백.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경험이 촬영 당시에는 얼마나 곤혹스러웠

을지 짐작이 간다.

이번 영화 촬영을 위해 눈썹인 설악산 정상에 올라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태권도를 수련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 일주일정도를 대청봉 근처에서 떨었다고 한다.

불량 청소년들이 정형사의 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태권도 선수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하는 과정은 태권도의 신비함을 느끼게 한다. 해보자는 그들의 약속이 투혼으로 바뀌고 꺾어내기 어려운 지옥훈련을 통하여 태권도의 예와 기를 터득해가며 새로운 팀으로 발돋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장면을 찍기위해 고생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태권 파이터」를 제작한 임선 감독은 “이 영화가 국내의 태권도 홍보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태권도 사범님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고 제작 소감을 밝혔다.

임선 감독이 태권도 영화를 제작한 것은 3년전 「코리안 보이」이후 이번이 두번째 작품이다. 태권도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그가 태권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것은 영화관계로 외국을 여행하면서 그곳의 영화인들로부터 받은 질문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왜 태권도 영화가 출품되지 않느냐? 한국은 태권도 종주국이 아니냐?”라는 것이었다. 태권도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져 보지 못했던 그가 이러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태권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외국에는 쿵푸나 가라데 등 액션 영화가 많은데 한국의 전통 무예로 세계화에 성공한 태권도를 소재로 한 영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눈엔 이상하게 비쳤던 것이다. 그후 임선 감독은 한국적인 액션 영화로 태권도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는 4월 8일부터 서울 교육문화회관광장에서 개봉될 「태권 파이터」는 태권도 정신을 순수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영화배우보다는 실재 태권도 인물들로 캐릭터를 구성한 것이 큰 특징이다. 태권도 영화를 만들기로 작정한 임선감독은 소재 발굴



을 위해 태권도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경기장을 찾아가 경기 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국기원 태권도 기념관에서 정국현 선수가 세계대회 4연패의 신화를 달성하고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정국현을 영화로 만들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시나리오를 태권도 챔피언으로서 이름을 떨친 정국현의 자전적인 이야기에다 픽션을 가미하여, 주연으로 정국현을 캐스팅하였다. 물론 다른 배역들도 태권도인들이 맡았다.

지난 1월 19일 영화진흥공사 시사실에서 영화 「태권 파이터」를 본 태권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정국현씨의 태권도 솜씨가 세계챔피언답게 뛰어난 태권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다고 입을 모았다.

성공적으로 영화에 데뷔한 정국현씨는 “태권도를 소재로한 영화라면 앞으로도 계속 출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태권**

정국현/ 1962년 전남 무안 출생. 한국체육대학 졸업
5, 6, 7, 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 미들급, 웰터급 금메달
6회, 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 미들급, 웰터급 금메달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태권도경기 웰터급 금메달
1991년 5월 26일 세계기네스북 인증서 수여



가정에서의 존대말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무도이다.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씀으로써 예의바른 태권도 가족이 되어야겠다.

게재된 원고는 조선일보사 출판국에서 발행한 『우리말의 예절』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우리 말은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경어법이 복잡하다. 문법적으로는 주체를 높이는 존경법,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공손법, 지금은 그 용법이 거의 사라진 객체와 주체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른 겸양법 등이

있다. 또 어휘적으로 존대말과 예사말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말을 골라 쓰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존경법은 말하는 사람보다 말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높은 경우 '웃으시다'와 같이 서술어에 '-시-'를 넣어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이 밖에 따로 존대말을 써서 주체를 높이기도 하는데 '밥'에 대하여 '진지', '먹다'에 대하여 '잡수시다'와 같은 것이 그 예다.

지나친 존대는 실례

용언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경우 일률적으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존경법 선어말 어미 '-시-'를 쓴다. 경우에

따라서 는 그 밖에 용언에도 ‘-시-’를 넣을 수 있다. 용언마다 ‘-시-’를 넣는 것이 더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옳지 않다. 지나친 존대는 도리어 예의가 아니고, 모든 용언에 ‘-시-’를 넣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지도 않기 때문이다. ‘○○가 일을 마치고 갔다.’를 높이는 경우 ‘○○이 일을 마치고시고 가셨다.’ 또는 ‘○○이 일을 마치고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가능한 말이다.

그런데 ‘왔다가 가셨다’보다는 ‘오셨다가 가셨다’가 자연스러운 반면, ‘읽으시고 계시다’보다는 ‘읽고 계시다’가 적절한 말이다. ‘할머니가 주무시고 가셨다.’에서 ‘자다’에 대한 ‘주무시다’처럼 존경의 어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존경의 어휘를 쓰고, 또 함께 나타나는 다른 서술어에 ‘-시-’를 붙여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야단 대신 ‘꾸중’써야

존대말을 잘 가려 쓰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 흔히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다.’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야단’은 어른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아버지한테 걱정(꾸중, 꾸지람)을 들었다.’처럼 말해야 한다. ‘물다’는 ‘여쭙다’, ‘말하다’는 ‘아뢰다(말씀드리다)’, ‘주다’는 ‘드리다’로 말해야 한다.

존칭의 조사 ‘-께서’, ‘-께’는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용언의 ‘-시-’로도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어에서는 ‘-께서’, ‘-께’ 등과 같은 조사보다는 ‘-이/가’, ‘-한테’ 등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꼭듯이 존대해야 할 사람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께서’나 ‘-께’ 등으로 높여야 한다.

존경의 어휘를 쓰지 않아야 할 자리에 존경의 어휘를 쓰는 것 또한 잘못이다. ‘아버님은 9층에 불일이 계시다.’는 옳지 않고 ‘불일이 있으시다.’가 옳다. 이는 ‘불 일이 안 계시다.’는 안 되고 ‘불 일이 있으시다.’가 옳은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또 “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꼭 한 가지씩 저에게 여쭙어 봐요.”처럼 자신에게 물

어본 것을 아랫사람이 물었다고 해서 ‘여쭙다’를 쓰는 것도 그 예이다.

상대 따라 어미 달라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경어상의 등급이 달라지는데 이를 공손법이라 한다. 공손법은 문장의 끝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체로 ‘왔습시다’, ‘왔어요’, ‘왔소’, ‘왔네’, ‘왔어’, ‘왔다’와 같이 등급에 따라 어미를 달리한다. 이 중 문제되는 것이 ‘제가 했어요’, ‘그러셨어요?’ 등과 같은 ‘해요’체의 말이다. 자문위원회는 이 ‘해요’체를 꼭듯이 존대를 해야 할 사람에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쓸 수 없는 말이지만, 가정에서는 분위기가 화제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는 친밀한 표현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고맙습시다’처럼 굳어진 인사말이 있는 경우에는 ‘고마워요’와 같은 말을 쓰지 않아야 한다.

부모는 대개 높여 말해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말할 때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아버지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아버지보다 윗분에게도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현실을 인정하여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와 같이 아버지를 높여 말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낮추어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어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모를 말할 때는 언제나 높여, 학교 선생님께 아버지를 말할 때에도 “저희(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와 같이 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

남편을 시부모에게 말할 때는 “아범(아비)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또는 “그이가 아범님께 말씀드리다고 했습니다.”와 같이 낮추어 말한다. 남편의 형이나 손위 사람에게 말할 때도 이에 준한다. 그러나 시동생이나 손아래 친척에게는 “형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처럼 높이는 것이 원



척이고 “○○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처럼 낮추어 말할 수도 있다. 남편을 남편의 친구나 회사 상사와 같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기 전에는 서술어에 ‘-시-’를 넣어 표현하고 남편의 친구나 상사라는 것이 확인되면 ‘-시-’를 넣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남편을 말할 때, 나이 든 사람은 ‘-시-’를 넣어 말해도 되지만 젊은 사람이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범’보다 ‘아버지’로

아들을 손자에게 말할 때에는 ‘○○야, 아범(아비) 좀 오라고 해라.’보다는 ‘○○야,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처럼 말하는 것이 좋다. 시동생이나 손위 동서를 사돈 또는 사장이름께 말할 경우에는 ‘-시-’를 넣어 말하고 손아래 동서라면 ‘-시-’를 넣

지 않고 말한다. 조카며느리는 친조카라면 ‘해라’를 쓰지만 촌수가 멀고 나이가 더 많으면 ‘하오’ 정도로 말한다. **태권**

경어 사용의 예

대 상	경어 사용의 예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허용]
아버지를 선생님께	저희(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남편 친구에게	그이(○○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손자에게	○○야,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

“가난하지만 꿈꾸는 사람에게 손길을 뻗쳐 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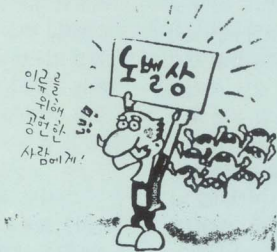
사람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벨처럼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을 키우고 복돋우는 것도 사회에 대한 큰 봉사입니다.

노벨(1833~1896)

발명가, 화학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으로 유학하여 기계 공학을 배웠으며, 화학 기술자인 아버지를 도와 폭약의 개량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실험 도중에 폭파 사고로 동생이 죽는 슬픔을 겪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연구하여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해 냈습니다. 형과 동업하여 유전 개발에도 성공하였는데, 세계 최초로 유조선을 사용하였습니다. 죽은 뒤 그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죽음의 장사꾼’

이것은 노벨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노벨이 발명한 폭약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노벨은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노벨도 처음 다이내마이트를 개발해 낼 때 그것이 살인을 위한 무기로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공사나 건설 현장 등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알았습니다.

노벨은 다이내마이트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노벨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탈리아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꿈을 가진 사람이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 연구하는 과학자,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학가 등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쓸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노벨은 죽을 때, 자신의 이런 생각을 유언으로 남겨 실천했습니다. 또한 그는 재산을 기부하여 <노벨 재단>을 설립케 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해마다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평화 사업 따위의 분야에서 뛰어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했습니다.

퀴리 부인, 아인슈타인, 처칠, 필립, 킹 목사, 사하로프, 테레사 수녀 등이 노벨 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인류를 위해 공헌한 많은 사람들이 노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태 2**

봄철 건강관리

신 호 철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가정의학과장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아직도 새벽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길가 화단이 어느새 노랗게 푸른 색의 새옷으로 갈아 입을 준비에 부산하고 오가는 여인들의 옷차림이 하루가 다르게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벌써 봄내음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 같다. 하기가 매년 이즈음이면 부는 매서운 바람도 흔히 꽃샘 바람으로 치부되는 것이 보통인데 긴 겨울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다. 사실 필자가 봄철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서두를 시작한다는 것이 공연히 재주없는 글자량만 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계절이 봄인만큼 누구나 조금은 들뜬 마음에서 활동량이 많아지고 조금씩 바빠지는 것이 보통인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기가 쉬운 사실이 한가지 있다. 바로 계절의 화려함속에 숨어 있다 불시에 찾아오는 여러가지 건강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매년 이맘 때면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게 된다. 원인이 분명한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보통은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며, 졸음이 오고, 주의집중이 잘 안되며, 식욕도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품이 연발되고 무기력해져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소위 춘곤증이다. 이러한 춘곤증은 대부분 별문제가 없이 잘 극복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인의 건강상태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잠복성 질환들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발병되는 경우도 있고 기왕에 앓고 있었던 만성 질환들이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봄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효과적인 봄철 건강관리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처럼 의례히 값비싼 보약이나, 각종 건강식품으로 봄철 건강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물론 시간에 쫓기고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이 격무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피우는 담배 한대와 퇴근길의 술 한잔이 그것을 대신 해줄지도 만무하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건강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회에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건강생활습관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가 바로 담배를 끊으라는 것이다. 흡연이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나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두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는 것이다. 운동은 유산소성 운동으로 한번에 30~45분씩 일주일에 3~5회 정도면 충분하다.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입에 시원한 음식이라고 많이 먹으면 마침내 질병이 생기는 것이요, 마음에 쾌적한 일이라고 지나치게 누리면 반드시 재앙이 있으리라. 병이 생긴 뒤에 약을 잘 복용함이란 병이 생기기 전에 훌륭히 스스로 예방함만 같지 못하니라.”

병, 대장암, 골다공증, 우울증 그리고 불안증의 위험성이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새봄을 맞아 활동량이 많아진 신체의 컨디션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의 증진효과도 있어 피로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세번째는 평소 저지방식을 하고 되도록이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라는 것이다. 지방질이 많은 음식보다는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만증과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뇌졸중, 대장암,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성도 감소한다.

네번째는 자신의 혈압 정도는 알아두라는 것이다. 만일 고혈압이라면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필요하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장질환,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

다섯번째는 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아 보라는 것이다. 비록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유방조영검사, 대장X선 촬영, 직장검사, 전립선검사, 자궁경부암검사, 구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물론 피부 및 유방의 변화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자신을 잘 아는 주치의에게 정기검진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여섯번째는 안전운전을 하라는 것이다.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일곱번째는 예방접종을 하라는 것이다. 아이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어른들이라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필요한 예방접종들이 있다. 만일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독감예방접종을 매년 해야 하고 폐렴구균백신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실제로 독감이 유행할 때 독감예방접종은 독감으로 인한 사망의 80%를 줄일 수 있다.

여덟번째는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와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주변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우울증, 심장질환, 자살의 위험성을 높인다.

아홉번째는 정상체중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비만증은 심혈관계에 무리를 주고 결과적으로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요통,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체중을 줄이더라도 1주일에 0.5kg 이상은 줄이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를 피하라는 것이다. 지나친 음주습관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각종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의 10가지 내용은 그야말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들만큼 효과적인 건강생활습관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단순히 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1995년 한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봄철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듯하다. 다만 평소 누구나가 염두에 두어야 할 건강생활습관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 되었다.

옛글에 보면 “입에 시원한 음식이라고 많이 먹으면 마침내 질병이 생기는 것이요, 마음에 쾌적한 일이라고 지나치게 누리면 반드시 재앙이 있으리라. 병이 생긴 뒤에 약을 잘 복용함이란 병이 생기기 전에 훌륭히 스스로 예방함만 같지 못하니라.”라 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새봄을 맞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평소의 생활리듬을 지나치지 않고 규칙적으로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가르침으로 생각된다. **태근**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우내 추위에 떨던 가로수들도 이젠 새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상상했던 나무가지에는 어느 사이엔가 제법 푸르름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다.

영숙은 약속 장소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 놓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벌써부터 싱숭생숭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쩌나 하

는 걱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자신의 나이를 헤아리고 있었다. 어느덧 스물 아홉이었다. 아직도 마음은 소녀였지만, 그러나 어쩌다 벌써 스물 아홉이나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여자 나이 스물 아홉이라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 봄에는 정녕 좋은 일이 있어야 할텐데, 아직 이렇다 할 서광이 비치지 않고 있었다. 부모님은 물론이려니와 주위 친구들도 왜 시집을 안 가느냐고 야단들이었다. 더욱이 친구들이 하나 둘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때때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지난 주 일요일이었다. 영숙은 모처럼 시내에 나가 여고 시절의 단짝이었던 민자를 만났다. 민자도 재작년 가을에 결혼하여 아기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린 아기를 업고 나온 민자는 이제 제법 아줌마 티를 내고 있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기저귀 가방을 꼭꼭 챙기는 것하며,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이라든가 어쨌든 민자는 이제 아기 엄마이자 아줌마마에 틀림없었다. 그런 민자를 대하자 여간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역시 여자란 제때에 시집을 가야 하는 모양이었다. 영숙이가 물었다.

“결혼 생활 재미 있니?”

“그럼. 미혼일 때는 모르던 걸 경험하고 있어. 아, 참,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사람 있잖아. 한번 만나볼 생각 없니?”

“네 남편 친구라는 사람 말이

공

진짜 사나이

글/ 이 광 복
그림/ 이 항 원



지.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종합상사 과장으로 있어. 최
영수 씨라고 괜찮은 사람이야.
오래 동안 해외 근무를 하는 바
람에 아직도 장가를 못 갔나봐.”

“만나는 거야 괜찮지. 하지만
날 무서워하면 어떡해?”

“무서워하다니...?”

“넌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지
금까지 만난 남자들마다 날 무
서워하는 거 있지. 도대체 남자
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들 네 실력을 아는 거 아
냐?”

영숙은 태권도 사범이었다.
비록 국가 대표로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과거 전국 체
육대회에 나가 준우승을 한 적
도 있었다. 그녀는 지금도 체육
관에 나가 관원들에게 열심히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었던 것이
다.

“실력은 무슨 실력...”

“운동 실력 말이야. 네 실력을
알면 웬만한 남자들이 겁낼 만
도 하지. 괜히 잘못 덤벼 들었다
가 큰코 다칠지도 모른다고 생
각할 수 있잖아.”

“애, 너도... 내가 뭐 사람이나
때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줄 아
니.”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여자
가 태권도 유단자라면 보통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잖아.”

“하여간 이상해. 한두 번 만난
남자들도 내가 태권도 사범이라
면 일단 질리는 표정을 짓는 거
야.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니까. 태권도 사범은 살림도 못
할 줄 아나봐, 췌.”

“아직 좋은 인연을 못 만나서
그렇겠지. 아니면 네가 너무 미

인이어서 그런지도 몰라. 남자
들 입장에서 네가 너무 예쁘
니까 도리어 주춤할 수도 있겠
지. 대개 예쁜 아가씨들에게는
애인이 있게 마련이니까.”

영숙은 출중한 미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
아 얼굴 윤곽이 뚜렷하였고, 어
머니를 닮아 몸매가 유난히도
날씬하였다. 더욱이 운동을 그
렇게나 많이 했는데도 그녀의
몸은 여전히 곱기만 하였다. 영
숙이가 말했다.

“애,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
라. 난 미인도 아니지만, 네가
아다시피 연애 한번 못해봤어.
이젠 연애고 뭐고 다 틀린 셈이
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겠
니. 그저 좋은 남자 있으면 적당
히 사귀다가 바로 시집가야지
 뭐.”

“아직도 늦지 않았어. 우리 선
배들 중에도 아직 미혼인 언니
들 많잖아.”

하기야 그녀 말마따나 선배들
중에도 미혼인 언니들이 적지
않았다. 개중에는 독신주의자들
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부
분은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혼기를 놓친 사람들이었다. 영
숙이가 말했다.

“이러다가 시집도 못 가보고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리야 있겠니. 어쨌든 최
과장이란 사람 한번 만나봐. 내
가 연락해 놓을게.”

그로부터 이틀 뒤 민자는 최
영수 과장을 소개해 주었다. 처
음 본 최 과장은 몸집이 커서 매
우 인상적이었다. 그런 체격을
가지고 운동을 했더라면 대성했
을 거라는 직감이 들 정도였다.

그뿐 아니라 해외 근무를 오래
해서 그런지 말쑥하며 행동이 매
우 세련돼 있었다.

영숙은 대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체격이 건강하고 능
력한 데다 매너까지 세련돼 있
었으므로 더욱 호감이 가는 것
이었다. 그뿐 아니라 직장도 국
내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대재벌 회사였던 것이
다.

오늘은 두번째로 그를 만나는
날이었다. 지난번 처음 만날 때
는 민자가 합석해 소개해 주었
으나, 오늘은 단둘이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영숙은 부푼 기대
를 안고, 지난번에 만났던 그 호
텔로 나갔다.

영숙이가 커피숍으로 들어섰
을 때, 최 과장이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손을 번쩍 들었다. 영숙
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
다. 그러자 최 과장이 일어나 악
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그들은 자리를 정하고 앉았
다. 최 과장은 아주 노련한 매너
로 영숙을 맞이하였다. 영숙은
그런 최 과장에게 더욱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남자다운 남자였다. 영숙이가
물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한 십분쯤 기다렸지요.”

그들은 곧 차를 주문했다.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너무
과용하셨지 뭐예요.”

“천만에요. 차 한 잔에 저녁
한 끼 대접한 걸 가지고 과용이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테 친
구 부인한테 들으니까 태권도



사범이사라고요.”

그 말에 영숙은 내심 찝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태권도 사범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영숙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면서 이번에도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최 과장이 말했다.

“아주 매력적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태권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알게 됐죠.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른 운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태권도를 배울까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영숙씨와 같이 사귀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혀 뜻밖의 반응이었다. 영숙은 이제야말로 진짜 사나이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이번 봄에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쿵당쿵당 뛰고 있었다. 그들 주위로 진한 커피 향기가 그윽히 퍼지고 있었다. **태권도**



이광복 / 작가

충남 부여 출생

1976년 현대문학 소설 추천으로

문단 데뷔

동포문학상 수상

시와시론문학상 수상

한국소설문학상 수상

(주요 작품)

창작집 : 화려한 밀실 / 사육제 / 겨울여행

장편소설 : 풍랑의 도시 / 목신의

마을 / 폭설 / 열망 / 술래잡기 / 바

람잡기 등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부산 백산체육관 이남영관장

헌혈 100회 나눔의 사랑 솔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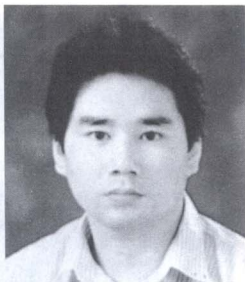
78년부터 두달에 한번 실천, 채혈량만 모두 4만

피가 모자라 애태우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까지 1백회 이상 헌혈해온 백산체육관 이남영관장. 이관장은 남몰래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1백회 헌혈기록을 세운 데 이어 여느때와 다름없이 정기 헌혈에 나서 부산적십자 혈액원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시민인 이관장이 헌혈을 하게 된것은 고교 2학년때인 지난 78년.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경남 하동으로 내려가 있을때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즉석에서 팔을 건어 정상헌혈의 두 배인 800cc의 피를 한꺼번에 뽑아 친구에게 수혈, 친구가 회생하는 것을 보고 헌혈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뒤부터 어떤일이 있더라도 두달에 한번씩은 꼭 헌혈을 하였다. 지난 91년 8월 대한적십자사 부산 지사에 헌혈 봉사회가 생기면서 헌혈은 보다 규칙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뽑아낸 피의 양은 모두 4만cc로 자신의 몸에 있는 혈액을 무려 8번이나 뽑아낸 양이기도 하다. 성분헌혈이란 피 전체를 뽑는 전혈과는 달리 피의 성분인 혈소관이나 혈장외 일부만 뽑은뒤 남은 피를 헌혈자 몸속에 도로 주입시키는 것이다.

이관장이 헌혈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90년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직장 동료부인을 도운 것. 당시 자신의 것과 주위의 헌혈자들이 가지고 있던 헌혈증서 30장을 다치는대로 모아 친구 부인에게 수혈 하였으나 주위의 염원에도 아랑곳 않고 세상을 떠나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다고 말한다.

만만 지난 4월에는 출산을 위해 입원한 부인과 같은 병실의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즉석에서 헌혈증서 10장을 기증해 이 산모가 건강하게 병원을 나서게 한적도 있다.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여 현재 태권도 5단인 이관장은 헌혈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헌혈광이 됐다고 말하며 그래도 내 피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던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발걸음이 혈액원을 향한다며... 사람들은 주위의 누군가가 위급할 때는 애타게 피를 찾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면 헌혈의 중요성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같아 안타깝다며 태권도인들이 헌혈 등 이웃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태권도**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광주 평동체육관 손동진 관장

전통 도예의 맥을 이어가는 삶

전통인간문화재 전수자로 선정

3월 새로운 봄이 오는 길목, 도심지에서 벗어나자 시원한 바람에 상큼한 봄내음과 함께 농촌의 구수한 흙냄새가 실려와 정겨움을 더해준다.

전남 나주군 남평면 오계리에 자리한 지석도요연구소. 체육인이지만 우리의 전통 도예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뜨거운 화덕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도예가 손동진씨(40세)를 만나 보았다.

잘 정리된 전시장에 들어서니 도자기 가운데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청자기, 철채자들이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일반 도자기들은 대부분 유약에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의 질이 매끄럽게 나타나지만, 그의 작품은 자연유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이 약간 거칠고 태도는 그리 정선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토속적인 고풍의 모습을 음미하는 것 같아 우리 조상의 구수한 삶의 세계를 느낄수가 있었다.

도자기의 제작과정은 상당히 많은 작업과정을 거친다. 먼저 흙을 채취하여 수비과정(흙을 거르는 작업)을 거쳐 잘 말린다음 반죽하여 성형, 정형, 조각작업을 거친후 1차 소성에 들어간다. 1차소성은 800°C~900°C의 화덕에서 10시간정도 구워낸다.

잘 구워진 도자기들은 정성껏 유약을 바르고 2차소성에 들어간다. 2차소성은 1200°C~1300°C를 유지하여 12시간정도 구워내면 작품이 완성된다.

이 모든 작업과정은 1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완성된 작품은 하나의 질



그릇이지만 그속에 거칠은 광야가 있고, 고독이 있으며 그 광야를 외롭게 달려가는 그의 삶이 느껴지는것 같았다. 도자기와 인연을 맺은게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부친인 목산 손양호(66세)선생의 대를 이어 도공의 맥을 잇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전통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것 같았다.

태권도와 도자기는 어쩌면 상반된 생각이 들지만 그는 하나의 삶이라 생각한다.

끝없는 도전과 창조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려서부터 배워온 태권도정신이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76년도 광주시 월산동에 무등체육관을 설립하여 4년정도 후진양성을 해오다가 택지재개발문제에 봉착하여 체육관을 휴관하고 도예작품에만 전념하였다.

그동안 많은 미술대전에 응모하여 입상하고, 86년 도에는 광주·전남 추천작가로 지정되는 등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여 현재 전통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 전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57세에 1단 승단 손희원 씨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있게 태권도장을 찾으라”고 권유

수자로 선정되었다.

그가 살아온 생애도 그의 작품성처럼 파란만장하였다. 3형제중 맏이로 태어난 그는 75년도에 조선대학교 응용미술과에 입학하였지만 가정사정으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면서 9년이 지난 84년도에야 늦깎이 졸업을 하였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태권도의 길을 잊지 못해 88년도에 광산구 옥동에 평동체육관을 설립하여 열심히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예작업장과 체육관을 오가며 작품활동과 운동지도에 쉴틈이 없는 그를 도와 부인 박씨도 체육관 운영에 일조를 하고 있다.

시골마을에 직접 승합차를 운전하며 수련생을 실어나르고, 관원들의 출석관리 등 도장운영에 한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다.

그녀는 정식 승단심사는 받지 않았지만 어깨너머로 배운 태권도 실력이 만만치 않다.

그들은 귀한 결실인 딸 윤지(13세)와 아들 성웅(11세)군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는 것이 항상 감사할 뿐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요즘 세대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전통적 기법위에 시대와 개성에 맞는 독특한 그의 작품세계를 접목시켜 전통성을 이어가려는 그의 몸부림에서 옛것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에게 무언의 외침을 들려주고 있었다.

그는 올 하반기쯤 개인작품전을 열기 위해 마지막 혼신의 정열을 쏟고 있다. **태권**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손희원씨(57, 회사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2남 1녀의 자제 중 두명이 출가해 손자가 두명이라는 손씨는 50세가 넘으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해 운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수차례 해왔으나 마땅한 운동거리를 찾지 못하다 태권도 수련을 결심했다는 것.

매일 2시간씩의 성실한 수련으로 15개월 만에 승단한 손씨는 “4년후 환갑잔치 때 손자들과 수련생을 앞에서 품새와 겨루기시범을 보이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운동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손희원씨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자신있게 태권도장을 찾으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한다.

손씨의 지도사범인 우영하관장(45, 제일체육관)은 “입관후 단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수련에 임한 성실한 수련생”이었다고 말하며 “손씨의 승단을 본받아 성인들이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권**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환갑을 4년 앞둔 할아버지가 손자뻘 되는 수련생과 함께 1단 심사에 응시해 화제가 되고있다. 최근 태권도 수련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3일 대구시 승품, 단 심사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대전 보운국민학교

무궁화 태권도 시범단 창단

“태권무, 격파, 품새의 빼어난 기술 연마”

대전광역시 보문산 산자락에 자리잡은 대전보운국민학교는 1969년 개교 이래 25회에 걸쳐 올해까지 9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수려한 보문산 공원을 등지고 대전공설운동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잡은 이 학교는 과학, 도서, 환경교육 실적이 뛰어나며 즐거운 학교, 아름다운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전시민체육활동의 주무대인 종합운동장을 옆에 두고 체육교육에 힘써 온 보운국민교는 전통적으로 배구팀을 육성해왔고 태권도부 역시 해마다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선수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왔다.

특히 94년도에는 오정중학교에 태권도 특기자로 7명을 배출하는 등 많은 선수를 육성해 왔고, 학교에 무궁화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여 150여명의 시범단원들이 국내의 시범을 위하여 태권무, 격파, 품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태권도 정신으로 굳힌 국난을 극복해 온 우리에게 전통무예인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는 김기창교장선생님은 평소 태권도의 육성과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봄·가을 체육대회에서의 태권도 시범경기와 각종행사 및 대회 출전에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과



보호 속에서 유약해지고 예의와 질서의식은 해이되며 학력만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건전한 심신을 길러 씩씩한 어린이로 자라나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태권도 수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에 따라 적극적으로 태권도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이 학교 태권도 코치인 장경구 맹호체육관장은 체육관을 설립한지 6년 동안 보운국민교를 비

롯하여 인근의 문창국민교, 대전중, 동명중, 남대전고,

충남전문대 태권도 동아리 학생들에게까지 태권도 수련 뿐만 아니라 교육적 사명감을 지니고 선도 활동을 펴오는 한편 생활대책 보호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등 보운국민학교의 육성회장까지 맡아 지역사회에 다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94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우수도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학교에서 보문산의 정기를 마시며 뛰노는 천여명의 보운어린이들은 더욱 기량을 닦아 민족의 상징인 호랑이처럼 용감한 기상을 함양해 나갈 것이다.

(대전 신재홍 편집위원)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전남 서면태권도장 임병영 관장

대한태권도협회 우수도장상 수상

우수 선수 육성으로 전남의 명예를 높이고
태권도 시범 보이며 갈채

전 남 승주군 서면
동산리에 위치한 서면태권도장은 86년 8월에 개관되었다.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청소년의 체력단련 및 호신능력을 기르고 정신수양과 충효와 예의, 국기, 인내심을 배양하고 문무를 겸비한 이상적인 인간을 육성해온지 8년. 면단위의 시골체육관이지만

지금까지 약 300여명의 유품 및 유단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전남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전남도교육감기, 전남협회장기 등 각종대회에서 서면도장의 수련생으로 이루어진 서면중학교 및 동산국교팀이 92년, 93년, 94년에도 종합준우승, 종합3위 등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92년과 93년도에는 서면중학교에 재학중인 선수가 전국소년체전 전남대표로 출전하여 이 고장 명예를 드높여 주었고 94년도에 대전에서 열렸던 전국체전에서 순천공고 2년에 재학중인 허용남군이 전남대표로 참가하여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 주었다. 서면체육관 출신 중에는 태권도 명문고교인 순천공고(허용남 2년, 정길용 95년 신입생) 여수고(김도일 1년) 구례여고(최영숙 95년 신입생)에 특기장학생으로 진학하여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꿈을 키우고 있다.

한편 서면태권도장의 태권도 수련생들은 서면지역에서 열리는 면민의 날 체육대회, 초·중학교의 운동회 및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태권도시범을 보여 많은 호응과 갈채를 받고 있다. 서면태권도장은 우수한

선수육성과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태권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로운 상이라고 할 수 있는 94년도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우수도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임병영사범은 태권도 한마당 '94 경연대회에서 청년부 창작품새(품새명: 창과 방패 2000년) 부문에서 빼어나고 절도있는 품새를 선보임으로써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사범은 수련생들이 품새, 겨루기, 격파 실력을 고루 갖추도록 애쓰는 한편 태권도 수련을 통해 인격을 수양함으로써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지도하겠다는 각오를 보여 주었다.

임병영사범은 현재 5단으로 전남협회 상임심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권**

〈전남 현현영 편집위원〉

태권도 세계화에 바란다

김석련 / 대성중학교 교사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문화 유산 중의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는 태권도.

일제 36년의 험난한 고문을 견뎌내며 그 맥을 이어온 태권도.

전 세계인들에게 각광과 사랑을 받고 있는 태권도가 올림픽 경기에서 정식 종목으로 결정된 것은 아마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속의 태권도를 더욱 화려하게 꽃피우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현실을 직시하여 과거를 뒤돌아보고 태권도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본 필자는 두가지로 나누어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그 하나로는 스포츠 경기적 태권도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체육학적 측면에서 도장 수련생들의 구체적이고 통일된 교육지도 방법의 정립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세계화로 발돋움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경기적 태권도는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여 국제 경기때마다 우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경기 기

술 또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체육적 측면에서 보는 태권도는 어떠한가.

오늘날 국내의 태권도 단체들의 행정을 볼 때 대한태권도협회는 대부분 경기에 대한 부분을,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부분만을, 국기원 부설 연수원은 지도자 자격 교육에 한해서만 행정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나라의 태권도 어느 단체를 보더라도 태권도의 진정한 학술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단체가 없음을 본 필자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한태권도학회가 있지만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 세계 속의 태권도인은 수천만명에 이르지만, 이중에 스포츠 경기인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태권도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결코 경기적 태권도가 아니라 사회 체육적으로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만명의 태권도 사범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본 필자가 세계 여러나라의 사범들과 수련생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을 때, 그들이 태권도를 좋아하는 이유의 공통점은 태권도는 건강을 유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적 가치와 함께 정신적인 자신감과 상대에 대한 예절을 갖추게 되는 점 등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



태권도의 세계화에 따른 여러가지 많은 과제 중에서도 태권도 도장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연구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된다는 말을 한결같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태권도 사범들의 도장 지도 운영 방법이 각양각색이며 이 사실은, 국내의 태권도 도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적 지도 방법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자세도 아직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기관이 하루 빨리 구성되어 학문적 체계위에 태권도의 전반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체육관 운영 실태와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연구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각 태권도 도장의 통일된 교육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하루 빨리 태권도 관계 기관에서 태권도 선수가 아닌 도장 수련생들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태권도 사범들에게 보급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필자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러기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관계 기관에서는 연구비를 조성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의 태권도 도장의 운영과 지도 방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하여야 한다.

셋째,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기본 자세의 학술적 정립을 통하여 통일된 지도 방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수련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급자에 대한 교육 지도방법을 우선적으로 정립하여 통일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급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연령과 체격 및 운동 능력에 따른 지도 방안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태권도의 세계화에 따른 여러가지 많은 과제 중에서도 태권도 도장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연구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태권도 선수들보다 일반 체육관 수련생들이 국내외적으로 훨씬 많으며 더불어 연간 수십 억원에 이르는 승품단 심사비가 어떤 경로로 쓰이며,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들어오며 무엇을 위해 쓰여지는가를 관계 기관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여 일선 체육관 수련생들에게 보다 나은 태권도 교육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태권도의 학문적 발전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정립을 위해 연구비가 조성되고, 일반 태권도 도장의 수련생들에게 스포츠 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 통일된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교육되어질 때 보다 나은 태권도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세계화는 한발 앞당겨지리라 본다. **한재진**

「태권」의 대한체육회 가맹을 반대하며

최근 일간지상에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해 태권협회측에서 심심찮게 거론하는 것을 보곤한다. 태권도를 전통무예로 볼 수 없다는 식의 정통성 시비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태권협회측의 주장에 대해 명쾌한 논리로 태권도계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신창화(경희대 태권도학과 졸업)씨의 기고문이다. 현재, 신씨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외교안보전공)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신창화/ 연세대 행정학 석사

전통민족무예 「태권」 체육회 가맹 허용을

민족전통무예인 태권은 일제시대에 금지되어 거의 명맥이 끊어졌다. 해방이후에는 일본무술이 토착화되는 중에 태권의 정체성마저 왜곡되어 왔다.

태권인들은 태권이 전국체전 종목이 되는 것은 주인문화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참된 해방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간절하게 외쳐왔다. 그러나 문체부나 체육회는 이에 대하여 여전히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태권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사단법인까지 조직하여 91년에 신성한 태권의 체육회 가맹이 계속 거부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것이 행여 일제시대부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의 반민족적 횡포가 아니기를 바란다.

3월 1일자 여러 신문에 난 문체부장관이 참가한 3.1절기념 햇불행진 행사의 컬러사진 기사를 보면서 같은날 낮에 눈비가 내리는 길거리에서 민족무예 중흥을 절규하던 태권인들의 모습이 이 행사에 가려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1정신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나 언론이 왜 그 일에 당장 필요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총독부 건물을 허물어버리는 일 못지않게 민족무예 태권을 국민체육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도 민족자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이용복 · 사단법인태권협회 부회장 -한겨레신문 1994년 9월 15일자 독자의 눈〉

「태권」의 대한체육회 가맹 등을 역설한 이용복, 이란 분의 글을 신문에서 읽고 몇 자 적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태권의 체육회 가맹은 「동일종목의 이중가맹」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행정적인 혼란 야기와 함께, 전통무술의 개념에 대한 현재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화로서 국내의적으로 널리 공인된 '태권도'라는 용어는 어느 특정한 동작만을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특정한 형태의 무술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전통무술을 포괄하고, 나아가 모든 인류 보편적인 적수공권이라는 의미를 담은 넓은 의미로서 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져 왔고, 또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도 전통적으로 자국 무술을 지칭해 오던 '쿵후'란 용어를 대신하여 아예 '무술'이라는 단어의 중국어 발음인 '우슈'라 지칭하여 중국무술이 모든 무술의 대명사라는 식의 논리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어, 우리가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의 전통무술을 대표하는 '태권도'라는 명칭의 '개념확장' 노력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며, 또한 이미 지난 반세기 동안 그런 추세가 계속되어 왔다.

기실, 태권도라는 명칭 자체가 지난 50년대에 각계의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을 대표할 전통무술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한 「명칭제정 위원회」

태권도, 전통무예 태권과 직접관련 없어

지난 5일 태권도가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자 태권도 관련 기사들이 언론매체에서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대부분 특집, 분석기사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는데 <한겨레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 언론들의 태권도 관련기사에는 한결같이 태권도와 태권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대로 인용하고 있었다. 한겨레신문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이 날짜 분석기사에서는 “국내에서 태권도라는 통일된 명칭을 얻은 때는 60년대, 옛 문헌에서 따온 수박, 탁견, 태권 등으로 불리다가 61년 9월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되면서 이름을 굳혔다”고 하였다.

그러나 태권도라는 용어는 55년 4월 11일 한국재태권도연맹 총체인 최홍희씨가 제안하여 일부에서 사용하였다. 예전에는 권법, 수박, 화수, 당수, 공수 심지어 일본말 그대로 가라데로 불렸지만 탁견이나 태권으로 불린 일은 없다. 그리고 61

년에는 태권도와 당수, 공수 등을 절충하여 만들어진 대한태수도협회가 창립되었으며 65년에 태권도로 개명하였던 것이다.

태권도가 전통성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전통무예인 태권에 연줄을 대고 있지만 사실 태권도와 태권은 역사적·기술적으로 직접 관련이 없다. 올림픽 종목 채택으로 국익과 민족 자긍심에 크게 기여한 태권도에 대한 찬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지는 것이 넓은 안목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그리고 태권도가 지니는 가치는 그 역사성과 전통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그것도 일체의 잔재를 씨앗으로 해서 이처럼 위대한 열매를 맺은 것, 그 자체일 것이다. 언론에서도 이런 태권도의 올바른 가치에 시각을 맞추었으면 한다.

<이용복·사단법인태권협회 대한체육회가맹추진본부장-세계일보 1995년 3월 5일자 독자한마당>

를 소집, 적절한 명칭을 강구하여, 전통무술로서의 태권의 명칭이 갖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중시하여, ‘태권’과 소리가 비슷하고, 손과 발을 사용한 ‘비무장전투기술’이라는 그 기술내용과도 일치시킬 수 있는 한자음인 발 ‘踏’자와 주먹 ‘拳’을 합성하여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태권도와 태권은 현재 그 공증상 시간적 차이성과 인물들의 비중첩성으로 인해 기술적 행정적 차이점이 있음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명칭만 약간 다를 뿐 역사적으로 동일한 무술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적어도 ‘태권도’라는 명칭이 한국의 모든 전통무술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라는 견지에서는 그렇다).

이런 이유에서 태권의 대한체육회 가맹은 동일종목의 이중가맹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용복씨의 소위 사단법인 「대한태권협회」라는 단체는 -이씨 스스로가 차칭 태권 전문가라 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정부에서 준인간문화재로 지정받아 면목동과 낙성대에서 태권전수관을 운영하고 있는 송덕기옹의 수제자들인 정경화, 박만엽씨 등이 전수생 모집을 위한 자신들의 광고문안에 “서울

에서 ‘태권’을 지도하는 곳은 2곳 뿐입니다”라고 명시하여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이용복씨의 소위 ‘대한’ 태권협회라는 곳의 “대표성”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송덕기류의 태권을 그대로 잇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단체이며, 또한 대한체육회의 가맹거절에서도 보듯, 이 단체는 대부분의 사회기관, 정부기관으로부터도 아무런 ‘공인’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KBS에서 방영한 태권(태권도)소개 다큐멘터리에도 정경화, 박만엽씨가 출연했지 이용복씨는 출연하지 않았다).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무술로서 전세계에 공인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대한체육회 등의 정식가맹단체로 승인되어 왔는데도, 전통무술로서의 ‘주인’자리를 찾겠다며 태권의 체육회 가맹과 체전종목채택 등을 요구하는 데에는, 이용복씨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태권도의 ‘가라데 기원설’이 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은 태권도가 일제때 수입한 가라데의 변형일 뿐이며, 송덕기류의 태권만이 ‘진짜’ 전통무술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태권도가 가지는 전통무술로서의 역사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 무술계 내부의 태권도 역사논쟁을 자신의 논리대로 기정사실화하여 이를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가입이라는 경사선인 때에 -무술계나 태권도계 내부도 아닌- 각 신문사 등에 전부터 자신이 주장해 오던 태권도 역사의 허구성을 악의에 찬 문구에 담아 투서공세를 벌여, 이것이 몇몇신문에 그대로 실리기까지 하여 당시(작년 가을) 적지 않은 독자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안겨 주었던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이번 태권의 대한체육회가맹이라는 주장도 역시 똑같은 부작용을 낳게 하리라 본다.

전직 태권도협회 지방지부간부로서 '제적'을 당했었다는 이용복씨의 불리한 경력과 함께, 기존의 태권도협회와의 공조하에 상호보완적으로 태권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태권도 역사를 비방하면서 「대한태권협회」라는 법인을 따로 만들어 어찌보면 권력지향적인 모습까지 엿보이는 것은, 그가 태권과 민족문화 전반에 대한 사랑보다는 여러 무술외적인 동기들에 의해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다.

해묵은 태권도 뿌리논쟁을 자세히 재론할 필요도 없이, 태권도기술의 태권기술과의 기술적 유사성은 "민족적 소절" 운운하며 얼버무려 버리면서도, 지난 50년대부터 태권과 태권도의 기술적 연속성을 자세히 언급한 초기 태권도 교본들의 내용은 쟁그리 '날조'라 무시해 버리는 그 편협함과 독선이 가라테 기원설의 비판적 수용마저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완전히 발기술 위주의 태권도를 예나 지금이나 완전히 손기술위주의 가라테와 동일한 무술이라 주장하는 것은 실로 전혀 닮지 않은 두사람을 형제, 자매 혹은 부자지간이라 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며, 또한 태권도가 경기화 이전부터 이미 발기술 위주였는데도 경기화 되면서부터 발기술 위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거나(당시 필름과 원로들의 증언들에 의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증명) 또는 초창기부터 태권도인들이 자신들의 교본들에서 가라테로부터 단급체계 등의 행정적 영향과 형(품새)과 같은 수련체계 및 손기술

등에 있어서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음도 분명히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전혀 언급도 없이, 태권도가 전통무술로 사실왜곡을 해 오고 있다고 강변해 오는 것은 실로 불합리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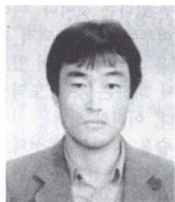
거의 같은 세대로서 동시대를 살아온 송덕가와 황기, 최홍희 등의 태권도 초창기 인사들의 말 중에서 태권을 배웠다는 송용의 말만 사실이고, 일제시대에 외국으로 건너가기전에 태권을 배웠다는 최홍희, 황기 등의 말은 거짓말이어야 할 아무런 '시간적 필연성'은 없는 것이며, 초창기 태권도의 태권 「기본동작」 결여와 「운동원리의 차이」 등의 주장은 무술의 개인별 다양성을 몰각하고, 송용류의 태권에만 촛점을 맞추어 태권도기술을 분석한데서 오는 결정적인 오류들인 것이다.

현존하는 무술관계 사료 중에서도 다수의 태권 관련사료들이 "날아가서 상투를 찬다"거나 혹은 "위협해서 금지시켰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권의 운동원리가 밀어 넘어뜨리는 기술 위주였기 때문에 타격위주의 태권도와는 운동원리가 달랐다는 이용복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송용류의 태권 기술과 태권도 기술에서 보이는 운동원리의 차이는 무술의 개인별 다양성이라는 요인외에도 지역적, 연령적 차이(송용이 태권을 전수 시킬 때는 이미 고령이었다) 등의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행정조직만이 다를 뿐 역사적으로 동일한 무술로 보아야 할 태권도와 태권을 따로이 각각 체육회에 가맹시키겠다는 발상은 「동일종목의 이중가입」이라는 불합리한 결과와 함께 한국전통무술의 개념에 대한 국민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한국무술의 원형을 복원시켜 널리 보급시키겠다는 이용복씨의 대의 명분과도 크게 상반되는 것이라 하겠다.

고로, 이용복씨는 태권과 태권도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기구내에 통합되어 상호보완하에 발전해 나아가야 할 동일한 무술이라는 인식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전통무술로서의 '주인'자리를 찾겠다는 식의 편협한 대결의식을 버리고 태권도 협회와의 적극 협조하에 태권의 보급에 임해야 하리라 본다. **태권**

동양무예의 서양철학적 고찰



염 동 삼 / 충남대 사회체육과 교수 · 이학박사

I. 서 론

오늘날 체육의 한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동양 무예(무술 또는 무도)는 스포츠로서 또는 정신교육의 수단으로서 일반대중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고 또 실시되고 있다. 즉 기술적 본질과 가치적 본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격기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무예의 차원을 넘어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양무예를 배우는 목적이 기술의 개개 형태가 지닌 본질을 배우고 동시에 궁극적으로 선을 포함하여 도덕적 성격을 발달시키며 비폭력적인 태도와 행동을 추구하고 해탈로 이끄는 것이라고 볼때 철학적이란 것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무예가 체육의 새로운 소재로 주목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학의 빈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무적 기능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차원높은 도덕으로서 예를 갖춘 경쟁으로 훌륭한 인격이나 해탈을 가져 줄 수 있는나 하

는 철학적 문제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양무예는 두가지 형태 즉, 강한 스타일과 부드러운 스타일로 나눌 수 있다. 강한 스타일은 날카로운 동작과 강한 펀치나 발차기를 중요시하며 부드러운 스타일은 부드럽고 흘러가는 듯한 동작과 기(氣)나 정신통일을 중요시 한다. 두 스타일의 양면이 합쳐진 것을 태권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스타일을 초월하여 전체적 입장에서 무예의 철학적인 면을 논의를 하고자 한다.

II. 동양무예의 철학적 배경

1. 도덕적 인격의 발달

Aristoteles는 도덕은 이론적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에 의해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무예에서도 단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즉 기술의 연마란 두사람 이상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수련이다. 여기에서 기술뿐 아니라 자기조절과 같은 도덕적 인격을 배우는 것이다. 즉 겨루기시에 상대방의 어느곳을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타격할 것인가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어떤 훈련을 함으로써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제심을 요구하고 경쟁에서 방어하는 자존심 그리고 이기기 위한 용기 같은 도덕적 덕성이 증진된다.

Nietzsche는 한 사람의 도덕적 특징은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도덕적 품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방어능력의 소지 여부에 따라 도덕적 가치는 다른 것이다. 즉 폭력을 피할때 능력이 있으면서 피하는 것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실제로 가능성의 문제인데 무술을 통해 행동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행동선택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스트레스 하에서 행동하는 법을 훈련으로써 도덕적 성격을 길러준다.

특별한 스타일의 무예에서는 검은 띠의 필수 상황으로 선한 도덕적 인격을 들고있다. 선한 도덕적 행위는 선한 성격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선한 사람에 둘러싸여 그들처럼 행동하도록 가르쳐짐으로써 도덕적 인격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 무예의 수련이 선한 것이고 수련자들이 선하다면 무예를 통해 선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2. 비폭력 자세와 행동의 증진

많은 무예 지도자들은 호전적인 제자들을 기르지 않는다. 다만 비폭력적인 사람만이 고수가 된다는 것이 무예의 전통이다. 이것은 수련자의 자질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무예의 수련을 통해 비폭력적인 태도가 증진된다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무예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고단자 일수록 호전적이 아닌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무예가 어느정도 숙달되면 자신감을 갖게 되어 호전적 동기를 제거하게 되고 폭력에 수반하는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어 도덕적으로 칭찬 받을 수 있는 비폭력 자세를 갖게 된다.

무예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싸움을 위한 능력 배양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예술적 성격

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용의 목적에 비유될 수 있다. 무예의 형은 열심히 수련하다보면 무예의 능력이 하나의 예술의 능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형은 춤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싸움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도 가지고 있는데 무예가 예술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무예의 목적이 싸움을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술과 격기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무예는 무예와 더불어 예술성을 포함하나 격기는 단지 싸움 기술만 발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은 싸움에 대한 관심을 돌려서 싸움에 능란한 만큼 예술적 즐거움을 얻게 함으로써 비폭력적 태도나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해탈과 같은 신비스러운 경험

보디타라는 사울린 절에서 불교신도들에게 선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 무예를 가르쳤다고 한다. 즉 무예수련을 통해 선의 궁극적 목적 중 일부를 이룰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사무라이도 선을 추구하였으며 죽음의 두려움을 선의 정신으로 해결하였다. 선은 身心一如의 입장에서 일상생활 중에 해탈의 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수행은 三學(戒, 定, 隆), 四無量心(慈, 悲, 戒, 捨), 四念慮(身, 愛, 心, 法의 四念慮), 八正道(正見, 正思, 正業, 正語,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에 의해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선은 어떤 행위를 멈추거나 주저해서는 안된다. 즉, 한 행위에서 그다음으로 물 흐르듯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예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기 때문에 멈춘다거나 상황을 추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도와 선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Wertz가 주장하는 선에서 정신통일의 일종으로 Samandhi가 있는데 이것은 한 상황에서 다음으로 물 흐르듯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예에서 Samandhi는 높이 평가되어 체계적으로 다음 단계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을 제거하여 생각을 멈추고 증거없이 행동하여 욕심이나 잡념을

없애 무예를 뛰어나게 하는데 이것 역시 무예를 통해 Satori같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선의 일면인 Satori가 있는데 이것은 정신통일의 최정상 상태 즉, 몰아일체 또는 무의식 상태로 해석된다. 따라서 Satori는 Samandhi를 수반하는 정신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무술을 통해 Satori에 이르는 싸움의 능란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술의 경지에 이르고 비슷하다.

이것들은 종교와 무예를 연결하는 두개의 고리이다. 무예의 일반적인 목적은 Samandhi와 Satori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무예를 통해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을 즉, 실재함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Satori는 무예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경험 할 수 있다. 다만 무예는 이런 상태를 체계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무예를 통해 Satori같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에서의 Satori와 Samandhi의 경험은 서양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학적 지식에 대해 Descartes방법론에서 과학을 통해 진실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과학적 지식에 대해 데카르트가 제시한 것은 직관이다. 한 단계에 집중하므로 그 단계가 학습되고 하나의 전체로서 종합되는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무예의 형과 기술이 단계적으로 학습되고 전체가 하나로 종합되는 것과 유사하다. 즉 데카르트 과학이나 무술에서 단계별 반복, 연마를 강조하고 요소의 주체를 분석하여 전체적 개관이 획득된다는 점에서 주체나 접근법이 다름에도 서로 같은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무예에 대한 세가지 주장점들을 철학적으로 살펴 보았다. 무예의 목적은 첫째, 도덕적 인격을 발달시키며 둘째, 비폭력적 자세와 행동을 길러주며 셋째, 해탈과 같은 신비스러운 경험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양철학으로도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윌즈, 데카르트, 골웨이의 견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 단지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언어 표현상의 문제이지 근본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IV. 제 언

1. 앞으로 동양무예의 오묘함과 신비함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무예에 대한 정당한 가치 부여와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를 계속 보호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동양무예를 체육의 한 소재로 받아들일때 무적 기능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훌륭한 인격이나 해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철학적 사고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무예의 泌傳性에 대해 公開性과 教育可能性이 체육과 접목될 수 있게 더 깊게 연구 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학회지**

태권도 부상 방지

서 언

한국이 중주국인 태권도는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태권도에 대한 일반대중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올랐으며 지난해 9월 파리 IOC 총회에서 차기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명실공히 전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확신한다.

이로인해 그 어느때보다 각 나라들은 태권도의 보급은 물론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앞다투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한국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중주국이라는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였다가는 차기 올림픽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하며 이에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은 물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상의 요인들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미연에 부상들을 막아보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94년도 국제 군인 체육회(CISM) 스포츠 의학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번역 소개한다.

부상의 원인

다른 격투기 운동과 같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선수들도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선수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지각하지 못하고 부상을 당함으로써 시간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선수로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입을 수 있는 부상들을 설명하였다.

•겨루기

태권도는 상대방의 정해진 부위를 공격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태권도연맹(WTF)은 선수들을 부상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호신구(Protector)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훈련

과도한 훈련은 태권도로 인해 얻는 부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

러닝, 체력훈련, 기술훈련 그리고 겨루기 등의 훈련을 하루 6시간씩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며 이와 같은 훈련은 선수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이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부상을 얻는다.

육체적인 면에서 볼때 반복적인 훈련은 마이크 로트라우마(경미한 부상)를 일으키며 장기간에 걸친 심한 훈련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마이크로트라우마의 경우 선수들은 적어도 최소한 회복이 필요한 48시간의 휴식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부상이 계속 축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 선수의 과다한 훈련은 선수 개개인을 지치게 하며 선수 생명에 치명적일수도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코치들은 선수들의 부상

정도를 가능한 빨리 알아 대처해야 한다.

●해부학적인 면

모든 선수들은 육체적으로 개개인이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어떤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더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발목, 무릎, 다리가 약한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

●근력훈련

근력훈련은 모든 태권도 선수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태권도 실력을 향상 시켜 줄 뿐만 아니라 부상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근육의 균형된 운동을 항상 유지함은 부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과거의 부상

과거의 부상은 앞으로도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에 관절 부위에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은 그들의 선수생활 동안에 언제라도 다시 관련되는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부상은 선수의 말년에 심한 고통을 줄 수도 있다.

●훈련중 입은 부상

많은 선수들이 경미한 부상을 가진채로 훈련에 계속 임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많은 경미한 부상들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회복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으로 확대된다.

반면 선수들은 훈련동안 부상당한 곳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다른 부위에 무리한 가중을 가하게 되며 이것은 2차적인 부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어떤 한 관절의 부상이 다른 관절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현상을 의미한다.

●허술한 기술

태권도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운동이며 선수들은 다년간에 걸쳐 고도의 기술습득을 연마하고 있다.

기술연마의 부족은 상대방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는 원인이 된다.

●장비

격투운동인 태권도는 스파링이나 경기중에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보호구의 착용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는 선수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부상을 입을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보호구를 착용하여도 보호구를 착용할 수 없는 부위인 얼굴, 목, 허벅지, 발 그리고 팔등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준비운동

운동전이나 시합전 준비운동의 미흡은 부상의 원인이 되며 운동전 근육을 충분히 풀어줌으로써 이러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부위별 부상

●머리

헤드기어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이다. 이것은 태권도 경기가 주로 다리를 이용한 발기술로 겨루기 공격을 하는데 헤드기어 또한 완벽하게 머리 전체를 커버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뇌진탕은 경기중 발생하는 가장 흔한 부상이며 선수가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항상 뇌출혈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얼굴

얼굴에 가해지는 어떠한 킥이나 펀치로 얼굴 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부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코는 시합 중 가장 흔히 부상을 입는 곳이다.

반면 눈은 그나마 얼굴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이 부위도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상들은 다른 심한 부상에 비해 경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얼굴에서 이의 부상은 뺨bones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마우스가드를 사용함으로써 거의 대부분 피할 수 있는 부상이다.

●목구멍

태권도와 같은 격투기 운동에서는 목과 그 부위에 관련된 부위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부상들은 초기에는 경미하게 나타나나

개인에 따라 호흡을 하기 곤란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듯 숨쉬기나 침을 삼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몸통

몸통은 일반적으로 가슴 보호구에 의해 예방할 수 있다. 사실 이 보호구로 경기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갈비뼈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흔히 발생하는 몸통부상도 선수가 부주의로 가슴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상은 선수의 생명에 치명적이다.

● 생식기

생식기는 태권도에서 부상을 당하기 쉬운 또다른 부위이다. 여러 내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특히 내부로 보호되어 있는 여자에 비해 밖에 있는 남자는 부상당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남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리부상

태권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는 다리이며 차기와 막기 등의 자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차기기술은 힘, 스피드와 다양한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스파링이나 시합 중 다리근육에 부상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발뒤꿈치도 부상을 얻을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한다.

● 팔부상

태권도에서 팔은 다리보다 방어적인 면에서 많이 쓰이며 다리와 마찬가지로 부상을 쉽게 당하는 부위이다. 특히 손가락, 손목, 팔꿈치 등은 보호구가 없어 부상을 당하기가 쉽다.

결 언

오늘날 태권도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태권도는 심신단련으로 또는 태권도 경기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수련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논고한 바와 같이 태권도는 많은 고도의 훈련과 기술을 요하는 운동이므로 선수들이 거의 완벽한 보호장치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아직 많은 부상을 당하고 있다.

코치는 가장 흔한 부상이 무엇이며, 부상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부상이 내실있고 체계적인 기초훈련으로 방지될 수 있으며 코치, 선수, 트레이너 등이 이를 알아 대처함으로써 부상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안전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

논문출처 : 94년 국제군인체육회 스포츠의학 상임
위원회 세미나 발표 논문
번역 및 발췌 : 오봉국 / 해군 중령, 국제군인체육
회 한국대표

아동의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만족도와 수련지속 행동과의 관계

오대영/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생활체육과 (1995. 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 태권도 수련생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점차로 성인 수련생의 층은 줄어들고 아동이 태권도 체육관 전체 수련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의 아동은 대부분이 성장하면서 태권도 체육관에 한 번쯤은 다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은 태권도 수련에 참여함으로써 지적, 정서적 측면의 성장 발달이 촉진되며, 신체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수련 연령층이 낮아지는 현상은 태권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수련생의 욕구를 따르지 못하여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대중화 및 보편화 현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보다는 그 위치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국기원 승품심사 대회 이후 운동포기 인원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아동 수련생들이 체육관을 다니면서 지속적 운동을 하기 보다는 단시간 내에 중도포기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체육관의 지도자, 시설, 운동프로그램 등이 타 스포츠활동보다 동기 유발의 조건에서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장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태권도 체육관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동이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아동들이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동의 태권도 수련 지속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념

1)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상의 특성, 시기, 장소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원리가 필요하다. 즉 목적설정, 참여대상자의 요구분석, 목표수립, 내용선정, 내용조직, 전개, 평가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체육관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그에 따른 이론모형을 개발하여 실제지도에 적용하는 데에는 두가지 관점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첫째로는 일선지도자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어떠한 프로그램의 이론이나 모형도를 실제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원리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1) 수련생의 특성과 주변요인을 고려한다.
 - 수련자의 집단내 유형, 지역적 특성, 개인적 특성, 기타 시설 등
- (2)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여성 특수지역, 직장프로그램의 연계 등
- (3)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단순한 태권도의 기술 뿐만 아니라 연령층에 맞게 체조, 유희, 놀이 등을 가미한다.

(4) 프로그램은 학습자와 사회적 요구를 조화시켜야 한다.

— 개인적인 필요도 보장하고 사회적인 요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면을 포함시켜야 한다.

(5) 프로그램은 일관성 있게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6) 프로그램의 내용은 계속적인 발전성이 내재되어야 한다.

2.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현재 태권도 체육관에서 아동이 체육관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아동이 지속적인 태권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은 유품(단)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에 만족하는 아동은 약 50%정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명중 1명이 개인적 특성, 준거 집단, 체육관 환경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중도에 그만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태권도 체육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으며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점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생들이 꾸준히 다닐 수 있도록 놀이 프로그램이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들에게 현재 자신의 수준을 일깨워 주며, 다음단계에 무엇을 수련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 주어 수련학습을 예상하게 한다.

셋째,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에 맞는 상황에 따라 수련생들에게 적당한 강화를 부여한다.

넷째, 수련생들 간에 적당한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사범이나 관장들은 이러한 일련의 목표들을 단계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육적, 인격적 감화자이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4~6학년이며, 서울의 강동, 강서, 강남, 강북 지역에 위치한 국민학교에서 각 2개교 씩 8개 국민학교를 무선으로 표집한 후, 각 학교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50명씩 모두 400명을 표집하는 단계적 유층집락표집방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아동의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수련 지속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설문지

IV. 결과 및 고찰

1.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만족도와 수련 지속 행동의 측정 결과

1) 아동의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만족도

아동의 태권도 프로그램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저 학년 아동이 고 학년 아동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 거리별로는 10분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지도 만족도가 높았고, 30분 이상의 거리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전반적인 만족도의 하위 요인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체육관 거리가 시설, 활동, 목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만족도

부모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아동의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만족도의 수준보다 비교적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태권도 수련 지속 행동

아동의 개인적 배경 변인에 따라 수련기간, 수련빈도(출석률), 수련강도(성취도) 등의 지속행동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수련 지속 행동은 수련강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련 기간이나 출석률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5학년 아동의 수련 기간이 평균 23개월로 제일 길었고, 최고 학년인 6학년의 전체적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

현재 운동 여부에 따른 지속행동은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아동의 수련 기간과 성취도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체육관 거리는 수련 기간이나 출석률, 성취도 등의 수련 지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만족도와 수련 지속 행동과의 관계

1) 아동의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시설 만족도와 수련 지속 행동과의 관계

(1) 수련 기관과의 관계

현재 수련 중인 아동과 과거 수련 경험에 있는 아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를 수련중인 아동의 체육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수련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었고, 과거에 수련경험이 있었던 아동에서는 수련 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2) 수련 빈도와의 관계

아동의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시설 만족도는 아동의 태권도 수련 지속 행동 중 수련 빈도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시설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는 모든 통계 변인의 영향이 아동의 태권도 수련 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만족도가 높으면 아동의 태권도 수련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3) 수련 강도와의 관계

아동의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시설 만족도와 수련 강도와의 관계를 현재 수련 아동과 과거 수련

아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는 현재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아동에게서는 시설 만족도가 아동의 수련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과거에 수련했던 아동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아동의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활동 만족도와 수련 지속 행동과의 관계

(1) 수련 기간과의 관계

현재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아동에게서는 활동 만족도가 아동의 수련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과거에 수련했던 아동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수련 빈도와의 관계

현재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아동에게서는 활동 만족도가 아동의 수련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과거에 수련했던 아동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수련 강도와의 관계

현재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아동에게서는 활동 만족도가 아동의 수련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반면 과거에 수련했던 아동에게는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3) 아동의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목표 만족도와 수련 지속 행동과의 관계

(1) 수련 기간과의 관계

아동의 태권도지도 프로그램 목표 만족도는 아동의 수련지속 행동 중 수련 기간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2) 수련 빈도와의 관계

현재 태권도를 수련했던 아동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수련 강도와의 관계

현재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아동에게서는 목표 만족도가 아동의 수련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반면 과거

나무의 비밀

노원호



누가 알면 큰일이지.
있눈을 보듬고 있는
내 작은 가슴을
참새라도 살짝 들춰 보면 어찌나
혹시나 다른 나무가 눈치라도 챌다면
봄을 맞을 있눈이 얼굴을 붉힐 테지.
그래서 어제는
어깨가 무겁도록 눈이 내려도
가만히 참고 있었네.
있눈이 포록포록 꿈지락거려도
나는 모른 채 잠잠게 있었지.
봄이 올 때까지
가슴에 눈이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지.
어쩔 이것은
비밀 아닌 비밀일지도 몰라.
나는 그럴 때가 가장 아름답거든.

시 : 노원호

-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으로 문단에 나옴
- 새싹 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세종 아동문학상, 한국동시문학상 수상
- 동시집 : 「바다에 피는 꽃」, 「고향 그 고향에」, 「아이가 그린 가을」, 「울릉도 사람들」, 「내 가슴에 초인종 하나 있다면」 등

그림 : 이희탁/ 일러스트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 올림픽회관 중회의실에서 최세창회장을 비롯한 시도지부 및 중앙대의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와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11억9천6백만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95년도 남녀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95년도 남녀 태권도 대표선수 선발전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국군체육부대에서 개최되었다.

94년도 국가대표 체급별 1, 2위자(2명), 94년도 우수선수선발대회 체급별 1, 2위자(2명), 95년도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 체급별 1, 2, 3위자(4명) 등 체급별 8명이 토너먼트 개인전을 펼친 끝에 국가대표 1, 2, 3위자가 선발되었다.

이번에 선발된 남녀 체급별 1위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제12회 남자 및 제5회 여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된다.



상임심판원 9명, 태권도 회관 건립 기금 100만원 기탁



지난해 IOC총회에서 태권도가 2천년 시드니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태권도 심판 9명이 뜻을 모아 태권도회관 건립기금으로 100만원을 대한태권도협회에 기탁했다.

박경선, 이종관, 노달선, 최돈오, 김경찬, 신범승, 김길주, 최재무, 유백만씨가 그 주인공.

이들은 "태권도인들이 앞장서서 성금을 모은다면 태권도회관 건립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국내 300만 유단자들이 다시한번 힘을 모아 태권도 종주국에 걸맞는 태권도회관을 건립하여 태권도의 학문적, 기술적 발전을 이루는 중심지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전태권도인의 동참을 희망했다.